朝鮮日報
夕刊
三十一日(水)
本紙朝夕刊十二面

政黨無誠意理由로 第七〇議會突然解散! 林首相今朝九時半奏請

【東京電話同盟】政府는 三十日以來 衆議院의 議事進行形勢에 鑑하야 三十一日 臨時閣議를 開하고 協議한結果 議事의 澁滯는 政黨이 時局에 處하는 誠意를 缺한것으로 認하고 斷乎議會를 解散하기로決定、林首相은 午前九時三十分 宮中에 參內、天皇陛下에 拜謁하고 解散을 奏請하엿다 (寫眞은 解散을奏請한 林首相과 解散을强調한 米內海相) 【以上號外再錄】

解散詔書 兩院議長傳達

【東京電話同盟】衆議院은 三十一日 解散되여 大橋書記官長은 同日 午前十時半 兩院議長과 會見 如左히 詔書를 傳達하엿다 同時에 貴族院은 停會를命하엿다

詔書

朕 帝國憲法第七條에 依하야 衆議院의 解散을 命함

御名御璽

昭和十二年三月三十一日 各國務大臣副署

詔書

朕 帝國憲法第七條及第四十四條第一項에 依하야 貴族院의 停會를命함

御名御璽

昭和十二年三月三十一日 各國務大臣副署

報國誠意不足 政黨反省이 必要

國民의 公正한 良心에 呼訴한다

政府解散理由發表

【東京電話同盟】政府는 三十一日 議會解散理由를 左와如히 聲明하엿다

現下內外情勢에 對處하야 時艱克服 國運伸張을 期하기爲하여는 正當한意味에서 朝野協力에 依하지아니하면 아니된다 따라서 政府는 組閣當初 議會에 臨하야 誠意를다하야 議案成立을 圖하고잇는바 最近 衆議院의 審議狀況은 極히 誠意를缺하며 特히 國防、國民生活의安定에 至大한關係가잇는 重要法案의進行을 阻止하야 緊切한 時務를 澁滯시키고잇는데 果然 眞實로 重大한時局을 認識하고 立憲의 皇猷翼贊의 誠意를 發效할수잇슨지 疑心된다 議會刷新急務가 傳함은잇는것으로 理由가 업는것은 아니다 卽政府는 此際國民의 公正한良心에 呼訴하야 是非를天下에問하야써 憲政의 本義를 顯現하는階梯에 서게된것이다 此時機를當하야 國民의 健實한政治的自覺醒을 期待하고 朝野가 協力하야 今日의 重大時局 打開에 全力을 다하기를 바라마지 안는다 이것이 衆議院의 解散을 奏請한 理由다

御名代宮殿下 米大陸御上陸御一日

【방쿠버三十日同盟特派員發】米大陸御假泊第一夜를 지내신 秩父宮同妃兩殿下께서는 午前八時頃 御起床 簡單한 御朝食을하신後 根道領事夫妻、西川日本人會長等이 호텔에 參入、今日의御日程準備에 奔忙하엿다 午前十時頃 根道領事의 案內로 十五階의 호텔·방쿠버 屋上에 올르시사 방쿠버全市를 御展望하시엿다 晴天인때에는 明白히그雄姿를 보이여 주는마운트·라이안의 端麗한 방쿠버港도今日은 細雨에 잠기여 보이게보인다 市中到處에 세운 奉迎塔奉迎國旗、花裝飾은 細雨에저즈면서 午後의市中御巡覽을 기달리고잇섯다 兩殿下께서는 屋上에서加奈陀新聞記者團에 拜謁을 賜하고 新聞記者의 質問에 愉快하게對答하신後 新聞寫眞班의 카메라아페서시고난뒤 八層御室에 入御하시엿다 兩殿下께서는 午前十一時頃 在留日本人代表의 御講演을御聽取하시엿는데 殿下께서는加奈陀太平洋岸에잇는 日本人의活動狀態、第二世敎育의 實情等에對하여도 興味기프시게 御聽取하시고 또여러가지 專門的方面에亘하야 御下問이게시고 最後로「더욱奮勵하라」고感激한말삼을 賜하셧다고 漏聞된다 正午兩殿下께서는 방쿠버호텔에서 根道領事夫妻主催의 非公式午餐會에臨御、加奈陀政廳代表킨레이사이드氏 加奈陀總督代表베레아링少佐、방쿠버市長시라-氏도 陪食의光榮에 浴하엿다

總選擧期日은 四月卅日로決定 三十一日閣議에서

【東京電話同盟】政府는 議會解散에 伴하는 總選擧의 日程에對하야 三十一日의 閣議에서協議한結果 四月三十日이것을 執行하기로 決定하엿다

【東京電話同盟】政府는 內務省에總選擧手續을 命하야 準備를進行하고잇는데 總選擧期에對하야 三十一日의閣議에서 衆議院議員選擧法第十八條第三項解散을命한境遇에는 總選擧는 解散한날부터 三十日以內에 이것을行한다는 規定에依하야 四月三十日施行하기로決定 卽時 上奏御裁可手續을 取하엿다 따라서 四月一日附 官報로써 總選擧의 詔書가 公布되게되엿다

三中全會를通過한 全國統一案에基해 西北國防을 積極的充實

綏遠、察哈爾、山西、河北、山東은第一線 陝西、甘肅、寧夏、河南、安徽等은第二線

蔣氏各將領과協議

【上海三十日發同盟】二十九日杭州에到着한 楊虎城氏는 三十日午前九時 新編第一軍長 鄧寶珊氏와함께 蔣介石氏와會見三時間에亘하야 西北問題를 中心으로重要會談을行하엿다 午後도 蔣氏의希望으로 會談을繼行하엿는데 中央은 張學良軍의 河南安徽移駐 楊軍의改編等을기달리여 三中全會를通過한 全國的統一國防計畫에基하야 西北國防의積極的充實을 實現할方針이며 그具體的計畫을 中心으로 協議한模樣이다

過般參謀次長 熊斌氏의北上에依하야 顯著히促進된 綏遠、察哈爾、山西、河北、山東을 第一線으로하는 國防計畫에繼續하야 中央은陝西、甘肅、寧夏를 河南、安徽江蘇와함께 國防第二線으로서國防體勢를 整備하고저하는것갓다

楊虎城張學良氏等의後를이어 韓復榘氏는 三十一日杭州着 蔣介石氏와會見하고 다시第十七路總指揮馮欽哉氏도 이와前後하야 杭州에赴할豫定인데 蔣介石氏를中心으로한要人의來往이頻繁하야 政局의中心은 杭州에옴긴感이잇다 昨年十一月杭州會議가 政變때문에 挫折된것에比하야 統一救國의潮水를타고 今回杭州會議의成果는자못 注目할價値가잇다 또于學忠氏는 張學良氏와 協議코저奉化에 向하엿다 (寫眞은 蔣氏)

蔣氏繼續靜養

【南京三十日發同盟】國民政府發表 行政院長 蔣介石氏는 繼續하야 靜養하게되고 行政院副院長 孔祥熙氏는 中國特使로서英帝戴冠式에 參列次로 四月二日上海發渡英하게되엿스므로 行政院長의 職務는 外交部長 王寵惠氏가 代行하게되엿다

南總督仁川視察 午後五時仁川發歸任

【仁川서金特派員發電】京畿道管內 初巡視의길에오른 南總督一行은 三十一日 午前八時 京城驛發 豫定時刻보담 좀늣게 九時半 仁川驛着 卽時府廳에 이르러 官民을接見하고 稅關築港 地方法院支廳 月尾島觀測所 仁川閣 鐘淵紡績 加藤精米所 朝日釀造場 朱安鹽田等을 視察한後 午後五時 仁川驛發 歸京하엿다

選擧費三百萬圓 內務省에서要求

【東京電話同盟】內務省에서는總選擧費로서 選擧取締費並同事務費其他監理에 要할費用等 約百八十萬圓 選擧公營에要할費用約百二十萬圓合計三百萬圓을 第二豫備金으로부터 支出하도록 大藏省에 要求하엿다

【東京電話同盟】政府는 總選擧取締費用으로서 司法省所管六十一萬一千圓을 第二豫備金으로부터 支出하기로 決定하엿다

地方長官會議召集 選擧對策을講究

【東京電話同盟】內務省에서는三十一日午前에 亘하야 院內政府委員室에서 本省에서 河原田內相以下 篠原次官 大村警保局長等 首腦部間에서 總選擧對策에 對하야 重要協議를 遂한結果 總選擧期日은 期項과如히 四月三十日로 正式決定하엿다 또 河原田內相은 解散詔書가 公布되자 卽時全國地方長官에 解散을 通牒하고 選擧對策을協議코저 四月上旬을 期하야可能한限 早急히 地方長官會議를召集、繼續하야 全國警察部長會議를열고 總選擧對策에關한政府의方針을 闡明、選擧準備에對하야指示協議를 行하기로決定하엿다

總選擧압두고 三會議開催決定

地方長官、警察部長、檢事正會議等 選擧의肅正을期코저

【東京電話同盟】政府는 三十一日閣議에서 總選擧對策을 協議한結果 政府는 今回總選擧에際하야는 어데까지던지 嚴正하고 公正하게 國民의意思를 議會에 反映시키기爲하야 速히 地方長官會議 警察部長會議 檢事正會議를 行하고 政府의選擧方針을 指示、政界의 廓淸과 選擧의 肅正을 期하기로하고 右三會議開催에對하야는 內相 法相에一任하기로 決定하엿다

商工省所管提出法案 겨우二案이成立

【東京電話同盟】今議會에 提出된 商工省所管重要法案은 議會解散의結果 燃料 鐵 貿易三國策法案等 十三法案中 兩院을 通過한것은 겨우 輸出補償法中改正案, 알콜專賣法의二案만이요 政府가 國策的見地로부터 通過에必死的努力을하든帝國燃料會社法案은 貴族院의委員付託으로되여 一步前에서 流産하게되고 마럿다 또 製鐵事業法案은 委員會에서 審議中인데 衆議院通過가지는 이르지못하엿다 또結果商工省은 他法案은 如何든 七個年計畫으로 作成을 促進하고잇든 燃料國策을 假令臨時議會에서 通過시킨다 하더라도 國策遂行上 支障은 不免할模樣이라한다

絶對多數獲得에 民政黨對策講究

【東京電話同盟】民政黨에서는 三十一日午後三時부터 本部에서緊急幹部會를 開催코 選擧對策을 協議하엿는데 同黨으로서는 此際町田總裁를 中心으로 結束을鞏固하고 選擧陣營을 完備하야必勝을 期하도록 各種具體的準備를 進行하게되엿다 그리고 同五時부터 帝國호텔에 前代議士懇親會를 開催 하고 席上에서 町田總裁並永井幹事長으로 부터 我黨은 一致結束하야 總選擧에臨해 絶對多數의 獲得을目指로하야 一路邁進할旨를 强調하야 一同을 激勵하기로되엿다

議會解散이 朝鮮에는無影響

尨大한明年度豫算通過되여스므로 事業進行上無支障

議會解散의 結果는 總督府의 新年度事業進行에 如何한 影響을 波及하는가? 이미 四億一千二百萬圓의 本豫算과 二百萬圓의 追加豫算을加한 四億一千四百萬圓의 未曾有의 膨大豫算이 成立되엿스므로 何等의 支障이업게되엿다 그러나 審議未了에 終한 關稅定率法中改正案에 伴한 漁業用燃料重油의 免稅廢止가 엇지處置되느냐가 남은問題이다 卽政府가 右關稅定率法中改正을 緊急勅令으로써 施行하는 手段도잇고 特別議會에 再提出할수도잇는데 只今議會解散에 依하야問題가 解消되엿다고 보는것은 早計이다 그리고 此를 除하고는 大綱 總督府의 新年度事業進行上에는 큰 支障이업는하야 매우 樂觀하고잇다

選擧取締에對한 司法當局의方針

【東京電話同盟】第七十議會는解散되여 四月三十日 衆議院議員選擧가 擧行되게되엿는데 司法當局은 卽時 選擧取締에關한 檢事長、檢事正會同을 召集하는同時에 左와 如한 方針下에 嚴正한 取締를 行하게되엿다

一、司法當局은 傳統的精神에 則하야 政黨政派의 區別이업시 嚴正公平한 取締를 行할것

一、選擧로 憲政을 明朗하게할 根本이되는 議員選擧의 公正明朗을 期하는것이 肝要하다 따라서 選擧의 公正을 害하는 犯罪는 峻嚴히 取締할것

一、投票買收、饗應利益供與其他 戶別訪問은 昨年의 總選擧에서 幾分改正되엿스나 選擧肅正의 精神에 基하야 더욱嚴重히取締할것

一、前回의 選擧取締에際하여는 一部檢察當局의 人權蹂躪이 攻擊되엿는데 今回는特히 人權을 抑壓지안토록 細心注意를拂하되 萬若今議會에서의 攻擊이 實現되여 檢察當局의 正當한 機能을 妨害하는일이 잇서서는아니될것

明年度豫算今日公布

【東京電話同盟】第七十議會에서 協贊한 昭和十二年度豫算案卽

一、昭和十二年度歲入歲出總豫算

一、昭和十二年度各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

一、豫算外國庫負擔으로될契約을 할要하는件

一、昭和十二年度歲入歲出總豫算追加案

一、昭和十二年度各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追加案

一、豫算外國庫負擔으로될契約을 할要하는件

은三十一日附官報로서 公布되여 四月一日부터 施行케되엿다

北平有力記者團 日本訪問

【北平卅一日發同盟】北平에잇는有力記者團 十四名은 外務省後援으로 來四月五日北平發朝鮮經由 櫻花滿發한 日本을 訪問하기로되엿다

人事·集會

◀權泰彙氏(新朝鮮社代表)三月二十八日振威郡北面佳谷里에서遭外艱

八面錄

◇第七十議會 最終日인 三十一日에 意外로解散。

◇明年度豫算은 通過되얏스니 政策遂行에 큰困難은업슬것이오 오즉 政黨의 버릇을 가르치자는 政府의一擊일뿐。

◇組閣前부터 新政黨組織의 準備가잇다하든 林首相이니까、新黨運動도 일어날는지。

◇新黨이 어떠한分子로 어떠한形態를가지고 나타날른지는 모르나 新黨이꼭새로울지도疑問。

◇海軍軍縮條約限度안으로 世界의海軍軍備를주리기爲하야 全世界的協定을하라는意向이 米國政府에잇다고。

◇參加할 나라들의 意向부터 먼저 물어보는것이 賢明치안흘지。

옴 피풍 히벡고 靑山膏 本舗 二円 一円

森永キャラメル 十錢으로 カワイラシイ 小鳥が當る! 森永小鳥セール。

景品
特等 オーム又ハインコ(籠付) 一名 五〇羽
一等 卷毛カナリヤ又ハ白文鳥 二名(籠付) 一〇〇羽
二等 セキセイインコ 二五〇羽
三等 文鳥又ハ金腹 四〇〇羽
四等 縞リス又ハホジロ 五〇〇羽
五等 十姉妹 一、〇〇〇羽
六等 マウス 三、〇〇〇羽
等外 小鳥冠 五〇、〇〇〇個

◇森永밀크카라멜 十錢짜리를 사시는분은 當選權에 소생긴 引換券付小鳥冠을 드립니다
◇實施期間 四月一日→五月十五日
◇景品引換期間 四月一日→五月廿五日
◇景品引換場所 百化店에서 사시는분에게는 卽席에서 引換해드립니다 小賣店에서 사시는분은 左記店舖에서引換합니다
京城府永樂町二丁目六〇 富田鳥獸店

京城參加店
三越 三中井 丁字屋 和信 平田商店 見晴堂 井商堂 門野ヤ菓子店 石城堂 原田屋 ス水菜堂 本山商店 三る堂 山崎本店 長根屋 だすや 吉昭和堂 ま井大陽堂 荒田本店 七前や 備明信菊五文店 成崎や文店 長堂 日新京堂 宮崎東京堂 森松屋 七田支店 電車課賣店 松山村商堂 少野商店 ライオン商會 はやら商店 船崎や商店 梅月堂 昌閣內各賣店 大學病院賣店
松蘭堂 富田商會 花房菓子店 白瀬菓子堂 豊本菓子店 大坂や本店 大河屋 三十字病院賣店 赤專病院賣店 醫田商店 平和商軒 大池商店 康生會京城醫院賣店 慶生商會 第一銀行內賣店 朝鮮殖産銀行內賣店 貯蓄銀行內賣店 尾田東京堂 三協商會 殿鳳鈍商店 味素商會 伊藤商店 飯澤商店 協和會賣店 借行社酒保賣店 ラジオ軒 富士味堂 石黑商店 とみや商店 數田商店 津多や商店 サツマや商店

大阪天王寺のシムクダシ
仁丹 岩崎大海堂 セメノ薬子 瑞兼尼涅菓子 의 중 자 제 약 산 돋 이 날 파 자

表發過經籤抽 セイコーシャ景品賣出 地方時計部
昭和十二年四月一日
各位様 Ⓢセイコーシャ地方時計部
左記當籤番號ハ(東京市淀橋區上落合二ノ六二七 振替口座東京八二二四五四番)A.B.C.D.E.F.G.H.I.ノ各組ニ共通デアリマス
壹等…十八金提時計(十本)… 125
貳等…蓄音器一臺(廿本)… 1750 2751
參等…寫眞器一個(五十本)… 151 255 408 982 1510
四等…クロム腕卷(五百本)… 18 42 56 85 98 151 200 250 275 280 298 381 395 401 430 451 582 591 618 635 655 678 700 758 761 808 838 851 876 888 909 939 980 1519 1629 1636 1749 1754 2750 2800 2915 3371 3910 4914 4500 4791
五等…シャープペンシル(五千本)… 前記番號以外ハ全部五等デス 5000 4811 4825 4880
=景品引換…四等以內ノ景品ハ抽籤券ト引換=本年四月十日カラ全末日迄御送リシマス

御禮 愛用謝恩クローム·18金HK張·正18金側 懷中及ビ腕時計ノ大賣出ハ皆様ノ華燕シキ絶讚好評裡ニ目出度ク三萬個ヲ全部賣盡シマシタ。是レ只管弊部ヘノ御愛顧ト熱烈ナル御後援ノ賜ト茲ニ深ク御禮申上グル次第デ御座イマス

醫師試驗準備書 鮮文醫學講義通信敎授二錢切手添付內容見本進呈 今大募集中 十名(百數)一人式講義十五冊半額 本名京城府薊設町一三九 春聲醫院

平壤府水玉里 (電話一〇六九番) 水玉産婦人科 醫學士 李麟杰

京城高等簿記學院 第四八回生徒募集 (晝夜) 京城府黃金町六丁目二三番地 (電本五三六〇番) (元實踐簿記專修學院改稱) (期前)
官廳銀行諸會社紹介◇晝夜新學期開始四月十五日◇學則要二錢切手

京城中等豫備專修學院 ◎新學期開始四月十日 (晝夜) (學則要三錢切手) ◎中等科第一部第二部第三部(各中等學校入學又ハ編入學受驗準備) 生徒募集 京城府黃金町六丁目二三番地 (電本五三六〇番)

京城春季競馬 四月 三日(祭) 四日(日) 九日(金) 十日(土) 十一日(日) 十六日(金) 十七日(土) 十八日(日) 開催 京城府東大門外 朝鮮競馬俱樂部

科喉咽鼻耳姜 永日姜 醫學博士 京城仁寺町一三七 電光二六六五番 入院室完備

新學期學用品 備具書考參 東光堂書店 京城府齋洞四街 電光(3)三七〇番 文具御要目錄二錢切手

轉移擴張 鄭起燮眼耳鼻咽喉科 京城府安國町155·電光2521番 (별궁터동쪽) (別宮跡東側) 入院室完備

電氣モーダ賣買 新古各種モーダ修繕等 遠近不問取扱하오니 問議하시옵 京城府觀水町一二六 製麪機製作元 中村鐵工所販賣所 電話光(3)一五九四番

恩給 最長期及短期共低利로取引함 地方人士의便宜를圖함 特別有利敏速融通應 京城府授恩町一六〇 鄭高會

朝報案內

採用 地方特派員採用履歷書送付面會日通知 京城府昭格町九三 昌振社

女店員至急募集 年齡十八、九歲ノ容貌美ナル人女子事務員採用ス希望者ハ自筆履歷書携帶、本人來談ノコト面談時間、自午後一時至三時 京城 村木時計店 出張所 株式會社 電二四七一番

外事 社員採用相當敎養アル二十五歲以上ノ活動家ヲ求ム希望者ハ京城府南大門通リ一丁目一八 大同生命保險株式會社支店直屬部申込マルベシ

採用 普通學校卒業程度年齡十五六歲 履歷持參面談要保證 京城府竹町一四四 サイワイ商會京城出張所

募集 輕事務員二、三名男女工數十名但アンプル經驗有技熟者優先 募集希望者ハ電話照會拒絶、 要履歷書持參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九二番地 合資會社 京城新藥社

恩給 五年分以上特別 立替御價引受更 京城林町 朴商會 八八(孝經橋後南側空屋)

今日부터登場하는 改正法規、官製新品

오는사월일일 즉 신이년도초부터 새로시행되는법령은 개정(改正) 신설(新設)을 합하야 여러가지가 잇지만은그중에 특히 일반사회에 적지안흔 영향이잇는 몃몃가지를들면 다음과갓다

郵便料金改正

이번의회(議會)의 협찬을어든 우편법개정안(郵便法改正案)은지난이십일일 관보로써 공포되엇는데 따라 사십일전에 생겨가지고일본내지는물론 멀리남양(南洋)만주(滿洲)까지 삼전이면가든 봉함편지와일전오리면가든엽서는오랜력사를가진자최를감추게되엇다

이것은 암만미리사두드래도사월부터 엽서에는 오리짜리우표를 더부치고 봉함에는 일전짜리우표를 더부처야각각목적지로가게되엇다(사진은 갑오른 엽서)

미도리新發賣

십전짜리 새담배미도리(綠)는사월일일부터 전조선서 일제히팔기로되어 피존당에게 새맛을 보이게되엇는데 연초가이상오어면것이나 잔돈이 들어 불편하던것이 십전한푼 내면 미도리를사게되엇슴으로 사기가편리케되엇다 그리고 장수연(長壽煙)도 십전짜리로 포장을 고치어 남옥은사월중순부터 봉옥은사월일일부터 팔기로되엇고 일본내지연초『아까쓰기』이십본든것을 십사전짜리로 이입하야 사월일일부터 판매키로되엇다한다 새로나온 양절권연『미도리//』(사진은 미도리//)

思想觀察審査員發令

오래동안인선(人選)중이든 조선사상범보호관찰소심사위원(朝鮮思想犯保護觀察審査委員)은 그동안 사실구명의인선을맛치고 이미 내각(內閣)으로 품의보내는데 오는사월일일에 정식발령하야 즉시그직무를집행하게되엇스니 이로써조선사상범보호관찰소의실사진은 완전히결성되게되엇다

興行規則改正

일전안동현(安東縣)극장의 대참사가 발생한데 징길히느긴바잇서 총독부경무당국에서는 조선영화연극흥행(映畫、演劇興行)취체규측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야 이것도 사월일일부터는 시행하게될것인데 개정안은 접객(接客)사장 실조롭것이다

並木町에火災

삼십일오후열시 이십분쯤에부내병목정(並木町) 구십륙번지최소사(崔召史)의 집에서 불이나서가튼사십오분경에 이웃을전소하고겨우 진화하엿는데 손해는약팔백칠십원가량으로 인축의피해는업스며 원인은 아궁지에서불이튀어나와 그여페 싸어든나무에옴마부튼것이라고한다

全面的大革正 學生身體檢查規定을 體位向上을目標로!

전사회의 행복을좌우하는 청소년의보건과 체력향상의 문제는 사회각방면에서 열심히제창되고잇는데 학무국에서도 이점에류의하야 금년부터는 입학시험에신체검사를 중히할것을 지시한바도잇섯거니와 다시이것을일층엄격히하기위하야 학교생도아동의 신체검사규정을 개정사월일일부터 실시키로되엿다 이에 관한학무국장의 담으로 발표된바에의하면 현행학교의 생도 아동신체검사규정은 대정십년 문부성령에 준거하여제정된것을 이래십오개년간 실시하여온것인데 이것을 전면적으로개정하야 사월일일부터 실시케된것으로 규정은사월일일 관보에부령(府令)으로 발포케된나 개정의 주요점은

一、신체검사시행의 취지목적을명확히할것 종래학교에서는매년일회식 신체검사를 하여왓스나 단순히 형식에만끄치지 안코업중시하야 아동、학생들의 보건과체력의 향상을위하야 적극적으로 하도록하여야만다는것

二、체력의 측정과함께 건강의진사(診査)를중요시하야 특히양호보호(養護保護)를필요로하는자의발견에 류의케할것 신체검사를 하되각개인의 건강상태에 주의하야 양호 또는보호를필요로한자를 지적하야 건강체도 인도토록할것

三、신체검사후의 처리방법으로서각종의보호 양호의시설의실시를장려할것특히허약한아동이만흔때에는양호학급(養護學級)을 설치한다던가 또는정기적으로 보건약을 복용케한다던가 태양등(太陽燈)등의 설비를한다던가 각종의시설을하도록할것

四、학교직원 용인등의 신체검사에대한것

등이고 그외에중요한것은 종래 사립학교에대해서는 당분간 생도아동의 신체검사를하지안흘수잇슴이라는 규정이 잇서 신체검사를 하지안흘수잇섯스나 금번의 개정규정에의하면 학교라고 명칭을 가진것이면 일률적으로실시키로되엇는데 이것은 학교사정을 보아 당국에서 신체검사를 하지 안어도 조흘리라는인정이잇스면 피할수도잇기는하다 그러나 금후는 새규정에의하야 적극적으로 신체검사를 시행하야 청소년의 보건을 향상식히게되엇다

漢江鐵橋를 죽엄의場所로 "死의旅行은春窮期의農夫"

춘궁이기며가는 농촌에서 견대지못하야 자살려행의끄테 한강철교를목표로 자살하려다 미수로소생한사나히가잇다—삼십일일오전 충남천안군천안면(忠南天安郡天安面)에사는 리운준(李雲俊)(二○)은 삼십일에부단둘가하야 자살을목적으로 경성에와서 한강제이인도교 제배—야부근에서 한강철교 제이방울하야 자살을도모한것을용산서와 간조(關組)원차석학(車錫學)순사와 석포(石浦)의 두사람이곳 모—타뽀—트를 운전하야 투신현장에가서그를 구출하여서 출장소에 보호중이라는데 그의소지품은 현금일전과 전당표두장이 드러잇다 하며 자살의원인은 농촌의 춘궁에 살길이막연하야 염세증이 나서 려행은 전혀자살을 목적으로 한강에까지 온것이라한다

朝鮮美術院落成記念 小品展開場 四月一日부터公開

시내중학정(中學町)이십번지에 새로선 조선미술원(朝鮮美術院)은 그동안 팔개월의시일과 일만사천원의 공비를드려서 일전에준공되바 이미會員은 조선서 처음생긴것으로 김은호(金殷鎬) 허백련(許百鍊) 박광진(朴廣鎭) 김복진(金復鎭)네분이경영하는 대가이라고한다 오늘이 남산이라고하나 혜사(?)도 미술관에 망상하게하는 라고 거부스러운 외식가를 연취우고 그대신으로 화단의소품(小品)을보아서 일주일간 기념전람회를 열겟다는데 이야말로 양춘이 가저다주는 우리 미술계의 명랑보이라고 아니할수업다 (사진은 전람회장)

高等犯人被逮 朱乙溫泉에서

【咸興】지난이십칠일 함남흥남서(興南署)의 지명수배(指名手配)를받든 함북경찰부에서는 즉시 관내각서에 통첩을 보내여 일반수배대벙리한중(李…)(二○)을 찾도록엄명하엿섯다 라남서(羅南署)관내 주을(朱乙)주재소에서는 온천(溫泉)에 잠복하지나 안흘는가하야 온천경을 샅샅치 뒤저본 결과 이십팔일 오후한시쯤 파연은 천흥(?)(金敗澈)방에 숨어잇는것을 감쪽가치 붓들어버리엇다 범인은 흥남을 검거조(?)에 서기(書記)로서 함흥부중앙정(咸興府中央町) 장서주(張…)의 집에 묵어 동무원(?)을 회령도 주한것이라한다 라남서에서는 이십구일 범인을 흥남서로 호송하얏다한다

今春入試의첫犧牲 遺書두고死의出發 "落伍者되어歸鄕할面目업다고" 宿食햇든親戚은各署에搜索願

경남창원군 웅동면 마천리(馬川里)에사는 서홍서(徐興瑞)(一×)이라는 소년은 약이십일전에 상경하야 그의친척되는 부내돈의정(敦義町)이십삼번지 오충구(吳忠九)씨 댁에 류하며 부내모보통학교의 입학시험을 두군데나 보앗스나 모다실패를 보앗는데 며칠동안심려를하고잇든남어지에 삼십일오후두시쯤 집을나간채로 도라오지안음으로 우씨가오날아츰 서군이기거하든방에 들어가보앗드니 락오자가된 자기는 고향에 도라갈 면목이업스니 이세상을 떠나런다고쓴 유서가잇섯슴으로 놀래여 곳시내각서에 통고하고 경찰과 협력하야 방금그의행방을 찾고잇는중이라고한다

驚馬에小兒重傷

삼십일오전열시이십분경 부내혜화정(惠化町)칠십사번지의칠호 장명환(張明煥)씨의 집아페 놀고잇든 그의둘재아들 기홍(基興)(三)이가 마차에부딋처 전치 달새가량의상처를입엇다 가해자는 통인정(通仁町)이십이번지의 마차군한동수(韓東洙)(三×)로 말이놀라뛰는바람에 이런 사고를낸것으로 따뜻한 봄날을 마지하야 거리에서 무심히놀고잇는 아해들이 쳐신스러가는이때 자녀를가진 일반부민은 주의할일이다

異域에彷徨튼 少婦에게私刑

【京都】원적충남예산군 대흥면(大興面)에두고 경도시하경구매소로입영정(梅小路日影町)에서 수유상을하는 리억조(李億祚)라는자는 지난 이월경에 대판시학교(大阪鶴橋)부근에서 배회하는 고향여자인 강소재(姜所才)(二×)가 모든것에 생소함을기화로 갈언리설로꾀여 전기현주소집에 잡부로팔라다가 뜻지안흠으로 잔인하게도 수족을 결박하고 회저(火箸)를 불에 달구어 여자의○○를 비롯하야 전신 십수개처에 화상을 입혓다는데 지난이십일일에 굴천서(堀川署)에서 탐문한바되여 방금피체엄조를 밧는중이며 또동인은 십수년전에 전기원적지에서 본처 경모(鄭某)의 머리에 바늘 십수개를 박아서 죽게하엿다고도 자백을 하얏다 한다

疑問의절름바리 客窓에서飮毒自殺 屍體는大學病院에寄附하라고 遺書로立場을辯明

삼십일일 아츰 열한시지나서 시내청진정(淸進町)일백오십이번지 삼남여관(三南旅館)에 유숙하고 잇는 인천부대화정(仁川府大和町)사백사십륙번지 김병훈(金秉勳)(二○)이가 전기시각이 이르러도 깨이지안함으로 그집이 고용하는사람들이 수상이 여기고 그의방으로 드러가보앗드니 의외에도 그가 찬시체 되여잇는 것을 발견하고 곳 소관종로서에 계출하여 검시한 결과 그 전날밤 『칼모틴』을 먹고 자살한 것으로 판명 되엿다 그는 그전날오후세시쯤에 전기려관에와서 류숙하고잇섯는데 생래의절름바리로 그가자살한원인은 아즉확연치는안흐나 시내효제정(孝悌町)일백십오번지에잇는 누님에게보내는 유서내용을보면 작년가을 어머니모르게 연희정(延禧町)에잇는 림야(林野)약일천평을 일천사백원에 파라먹은사실이잇고 또방금 모토지부정사건(土地不正事件)으로 양주서(楊州署)의취조를받고잇스나 주범박모(朴某)가 어듸로인지도 망하엿기때문에 자기의혐의가 매우곤난한듯한 의미의글자가 써잇스며 그의주머니속에는 전기서에 종합장이드러잇는점으로미루어보아 이사실에 크게 마음을 썩이고잇든가 그만 죽은것이 아닌가한다고한나 그리고죽은시체는 대학병원(大學病院)에 기부하여서 자기와가튼 절름뱅이를 연구하는 의사의 연구재료로써 달라고 유서가운데써잇섯다고한다

中央線工事遲滯 明年末에나測量完了 停車場은八키로마다設置

칠천오백만원의 거액의 공사비로써 진행중에 잇는중앙선(中央線)철도건설공사는 방금 남북량처와 중부의 어려운공사장소부터 먼저 시행하고잇는터인데 이선로는 예상보다공사진행하기며 곤난한곳이 비교적만하서 처음에 십이년도말까지 전공사구(工事區)의 측량을 마칠예정이엿스나 이현상으로 가다가는 십삼년도까지 걸리게될것으로 보고잇다한다

그리고 청량리(淸凉里) 영천(永川)사이에 신설될정거장수는 팔키로마다 한개식설치할터이므로 사십오개 내지 오십개역으로될터이라한다

"스리"鼠賊等跋扈 賞春客의破興될消息

백화란만한 봄이되면 『비집―』절로『스리』등이 칠신근리 시민의 상춘보(賞春譜)에 암영을 던지고잇다

삼십일저녁열흡시경 부내혜화정(惠化町)백사십일번지 최동천(崔東天)전당포입하서 주저하고잇는 소년을 순찰하든 동대문서원이 발견, 취조한결과 이 소년은 전북 익산군 팔봉면 팔봉리(益山郡八峰面八峰里)태생으로 집도 업시 도라다니는 박남욱(朴南旭)(一×)(假名)으로그는 그날오후한시반경에 서 구경에 취하여잇는 묘령의 부인이 엽헤끼고잇는『핸드빽』을 용감히도 빼아서가지고 그안에 들어잇는 금팔뚝시계를 전기전당포에 잡히러든 지음에 이와가티 잡힌것으로 그는진기『핸드빽』안에 들어잇든 현금이원오십선도 가지고잇섯다한다

窃盜前後十四件 被害額三千三百餘圓 樓上町强盜의餘罪續續判明

지난삼월일일새벽 시내루상정(樓上町) 삼호(三戶)순사부장의집에 드러가서금품을강탈하려다가 뜻을 이루지못한 강도미수(强盜未遂)범적 양주군회천면선암리(楊州郡檜川面仙岩里)현주소기 일정치못한 전과삼범 로수봉(盧守奉)(二×)은 그후종로서에서 여죄를 추궁중이든바 그는 본적(本籍)수원군우정면(水原郡雨汀面)리삼룡주소부정의 전과일범리삼룡(李三龍)(二×)을 압잡이로 세우고 작년팔월시내 매동보통학교(梅洞普校)에서 저금통장 현금 양복등 일천삼백원가량을 훔친 것을 비롯하야 시내각학교 양복전등에서절도한사실 열네건 그피해액삼천삼백원가량을 자백하엿다고한다

滿洲로가는前夜에 들뽀에結項自殺 이생의怨恨을死로清算

먹고살길이업서 만주이민의한 사람이되여 정든 고토를 버리고 떠날날을압둔 그날밤에 들보에 목을매여 자살로써 원한 이가득찬 이진세를 청산한 눈물겨운사실이잇다

그주인공은 경남거창군남하면 양항리(居昌郡南下面良項里)송경석(宋敬錫)(三×)인데 어려서부터 떠러지못한가정에 출생하야 그동안 피땀을흘려가며 홀로게신 어머니와 어린 처자를 다리고 근근히 연명을하여오든바 전고미증유의 작년대수해로 말미암아 가장집물은 물론이요 일간두옥까지 수마군의 작희로 탁랑에 떠나려보내고 먹고입을것이업서 일곱식구는 서로붓들고 주야간 원한과설음에서 불행무진한 운명을저주하야 마지안튼바 마츰내 군당국의알선으로 만주이민에 들게되여 꾸림내야꾸릴것업는 짐을 꾸려노케되엿다 그날은 음력이월십오일 밤이라 유난스리 밝은달비츤 무심하게도 그가홀로누어잇는방에 비처줄때 과거반생동안에 첩첩이싸혀잇든 원한과설음이 극도로흥분되여 죽엄으로 진세의복잡한

트럭과汽動車 衝突로轉覆 京東線標橋驛附近서

【利川】지난삼십일오후령시십분에 수원을떠나 려주로 향하는 까소린자동 운전수 정홍규(鄭洪奎)(二×) 차장 리영인(李榮仁)(二×)이 운전하야 동오후한시사십분쯤에 리천군마장면표교리역(利川郡麻長面標橋里驛)으로부터 약삼백메돌되는지점에잇는 후미끼리를 통과하려할시음에 때마침 운전수리학봉(李鶴奉)(二×)이가 운전하는 경기도청 튜럭(京五○三七號)가 수원방면으로부터 사방공사(沙防工事)에 심을 소나무묘목(松苗)을 실고 전기후미끼리를 지나감으로 기동차는급정거를하엿스나 결국전기튜럭과충돌되는동시에 추럭은외쪽에 기동차는 오른쪽에 각각전복되엿다는때 전기동차는 전행으로 전복되면서 가로수에걸치게되야 아조쓰러지지는안어슴으로 이십여명의승객과 상반운전수 차장도무사하엿스며 다만승객중 강원도철원군인주면휘천리(江原道鐵原郡…)신씨(申氏)(×)가 전치일주일의경상을입엇고 리천군연의원(利川…)에 입원치료중이다 (사진은 사고현장)

各學校合格者

協成實業商科(五十一名)

李春葉 韓泰熙 洪輔洙 鄭灝斗 趙昌燮 南鴻鎭 金鐘弼 崔圭爻 李翊鎔 李起大 沈興燮 李勳國 李鳳烈 姜濟昌 林正埴 林秀埴 金澤炫 金洙谷 吳濟奎 李炳鐘 朴圓秀 尹鈴鏞 南宗宗 韓相益 金昌潤 尹虎奎 崔文植 延琦碩 金滸興 金起泳 金孫洙 韓翊傑 鄭康柱 池楨植 朴忠鎬 姜日燮 閔丙俊 劉俊 兪達根 金學根 金洛珥 全炳南 金時在 高永弼 金重燁 姜立模 金方學 李邦學 李鍾完 李相汶 李壽徹

同 工科(二十四名)

劉康烈 林鍾根 李昌基 金秉翰 朴勝植 鄭泰壽 南相彝 黃永滿 李公勳 田在秀 朴斗榮 崔相湖 金鍾正 閔丙琬 尹吉榮 李梓燾 李炳德 沈在樹 李鐘憲 李鍾浩 沈斗燮 申在春 崔元燮 池允植

天氣豫報

概況 低氣壓은 琉球附近에 七五六미리 黃海下流에 七六四미리를보이고 高氣壓은 蒙古와朝鮮으로부터 裏日本에빠처서 七六六미리를보이고 오호쓰크海方面은 氣壓이낫다。北鮮은晴 南鮮及朝鮮은晴 半島의東岸은 天候가조타 琉球諸島及南九州는 비가올듯하고 中部北西는 흐릿스나 東北地方及北海道는晴 樺太는風雪이强하다

豫報 京城地方은 今夜는晴 明日도晴 全部同一

昨日最高 九度三
同 最低 (零下一度五)
今朝最低 (零下○度二)
正午溫度 九度

스포—츠欄

卓球大會

京城運動具商賈主催의 第十七回春期卓球大會(第六回全日本都市對抗卓球朝鮮豫選의 京城代表 選手選拔豫選會兼함)와 第五回老童卓球大會는 來四月十七、八兩日間 來靑閣에서 擧行하기로되바 參加希望者는往復葉書로 所屬 氏名等을明記하야 四月十日까지 京城府本町一丁目京城運動具商會로 申請하기를바란다고한다

中等選拔野球經過

大每主催의 第十四回全日本中等學校選拔野球大會第四日은 三十一日午前十時부터 甲子園球場에서 繼續擧行한바 이날의 各校戰績은 다음과갓다

【第二回戰】

和歌商	000000000	0
浪華商	00000340A	7
甲陽中	000000100	1
熊本商	00021010A	4

野球聯盟幹部來社

京城實業野球聯盟의 今年度當番幹部은 殖産銀行이되여 新任幹部 松井泰範氏(理事長) 野村隆吉氏(同幹事) 國光計雄氏(同幹事)等一行은 三十一日午後에 人事次로 本社를訪問하엿다

運動界人事·集會

▲金南全君 (光州籠球團主將)腸窒扶斯로 入院加療中이든바 三十日 光州濟衆院에서別世

和暢한봄 꼿동산의和信으로

全店春季大賣出

四月一日부터 於六層호—르

春裝雜貨逸品會
—精選雜貨를一堂에蒐集하야—

花節流行衣裳次陳列會
和信이特選한流行衣裳次를各種으로 陳列하와 여러분의高覽을바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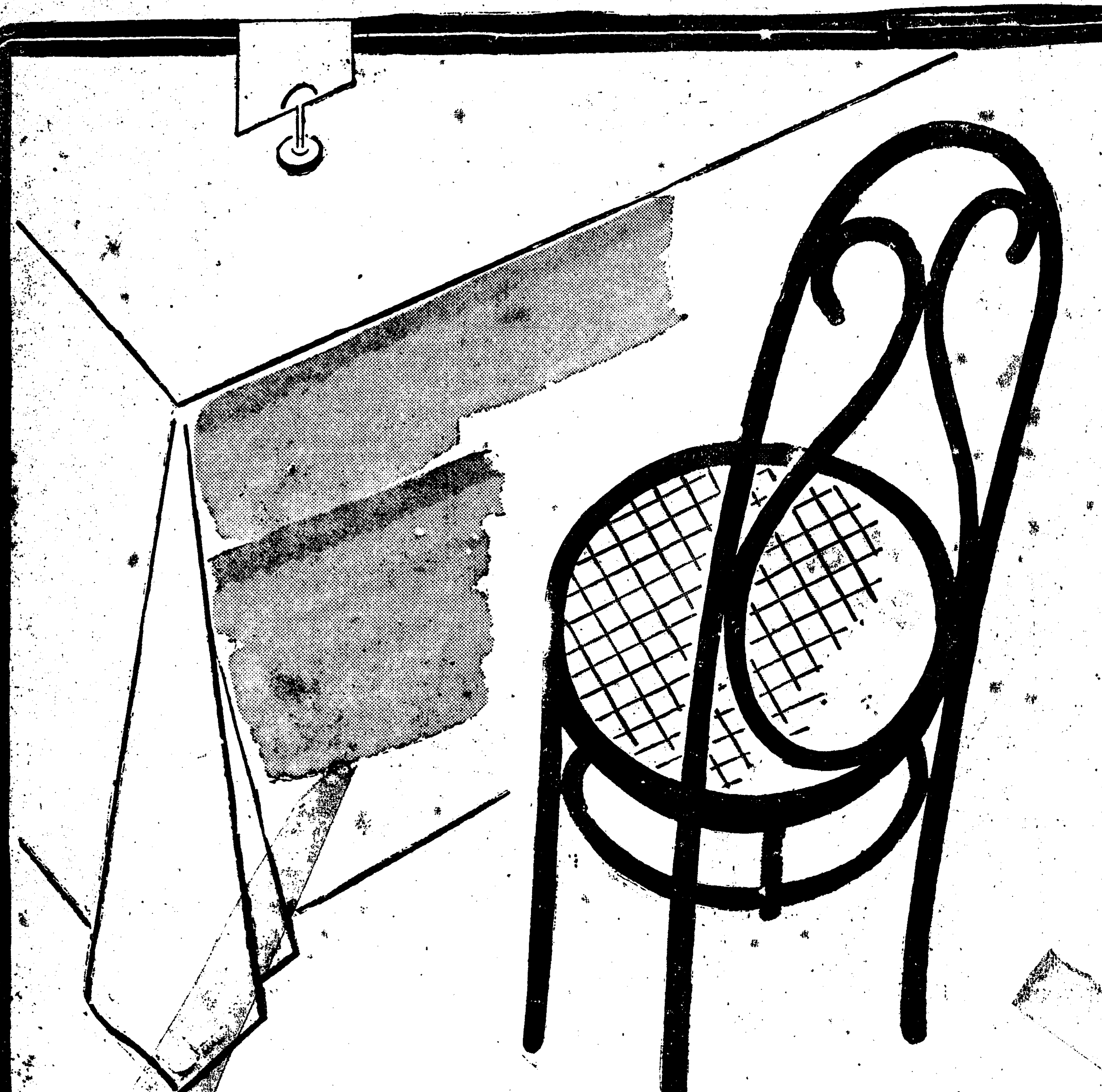
春節洋品雜貨賣出
○新型春節中折帽子各種…………新館 三層
○新流行와이샤쓰…………〃
○花節에마즈실『넥타이』各種…………〃
○婦人·兒童用品新着各種…………東館 三層

流行쇼—ㄹ·花節파라솔·핸드빽·各種陳列 洋品部

春節流行衣裳次賣出 新館二層 綢緞布木部
今春流行主調를따라 優良한物質로써 流行에適切하온 新品을各種으로 具備하압고花節所用에相副하시도록 豐富히陳列되야잇슴니다
鮮麗한色調·優良한品質·端雅한織造로 花節에相應하야適當하실新品을具色하압고
輕快하고鮮美한新製의……

新型婦人服兒童服陳列 婦人服部 新館四層 洋服部
⊙兒童服特價提供品도豐富
各門專學校、市內各中等學校의
□御制服注文引受
換着期에必要하실
□洋服類、帽子의……크리—닝引受
新入學과卒業의祝賀品으로必要하실
□實用腕卷時計賣出 東館 一層
春光을따라郊外運動에需用되실各種
□春節運動具各種賣出 新館 六層
春節新裝……東館 四層
洋家具·朝鮮家具各種셋트賣出
◎舊雜貨各種具備 東館 一層
朝鮮物産土産品賣出 朝鮮物産部
하이킹에! 픽크니크에! 運動會에? 봄行樂에必要하실……
和信食料品各種! 新館 六層
오림픽카메라·其他 高級寫眞機·諸材料
⊙現像·燒付等特別히奉仕的廉價로引受
兒童乘物各種陳列 新館 五層
귀여운아기네이動하고싶흔여러가지의 自轉車、自動車其他乘物을具備陳列
⊙最新型의紳士靴와……堅固한學生靴……
流行靴·學生靴·特別調製 新館 五層

京城 和信



武田發賣品

胃酸過多

溜飲、噯氣
空腹時胃痛

胃壁을
保護하는

ノルモザン錠

노루모잔

胃酸過多症과 胃液分泌過多症은
放任하면 胃潰瘍이되기쉽다

食後胃를壓迫하는것갔고 二一三時間쯤지나면반드시胃痛이따러드림이나고, 가슴아리가되는 **胃酸過多症**……

……새벽에든지 夜間空腹時에胃痛이나고 噯氣나가슴아리를이르키는 **胃液分泌過多症**……

等胃의症狀은 神經質이나 精神過勞亢奮心痛等의 中樞性刺戟이 原因이되는일 이잇스며 又刺戟性不消化性의 食餌、急히먹는 習慣、咀嚼不充分 飲酒、喫煙等末梢性刺戟의 原因이되는일도잇다

이러한症狀은胃底腺의胃液分泌가亢進하야食物의消化의必要以上의胃酸이分泌되여그것이胃의粘膜을刺戟하야苦痛을惹起식히는것인데 治療를게을리하야 過剩한 酸이不絕히胃粘膜을 刺戟하는結果、遂히胃壁을糜爛식혀서 慢性症으로移行식히하면 곳치기어렵게되며 胃潰瘍이되고만다

【効能】 胃酸過多、胃潰瘍、溜飲、吐瀉、가슴아리、噯氣、生水、胃痙攣、胃가다루、胃爛、胃痛 便秘、過飲、惡醉、宿醉、車暈、船暈

【藥價】 三回分携帶用容器入(二〇錢) 三日分(五〇錢) 一週間分(一圓) 十六月分(二圓) 一ケ月分(三圓五〇) 二ケ月分(五圓)

制酸과胃粘膜의被覆保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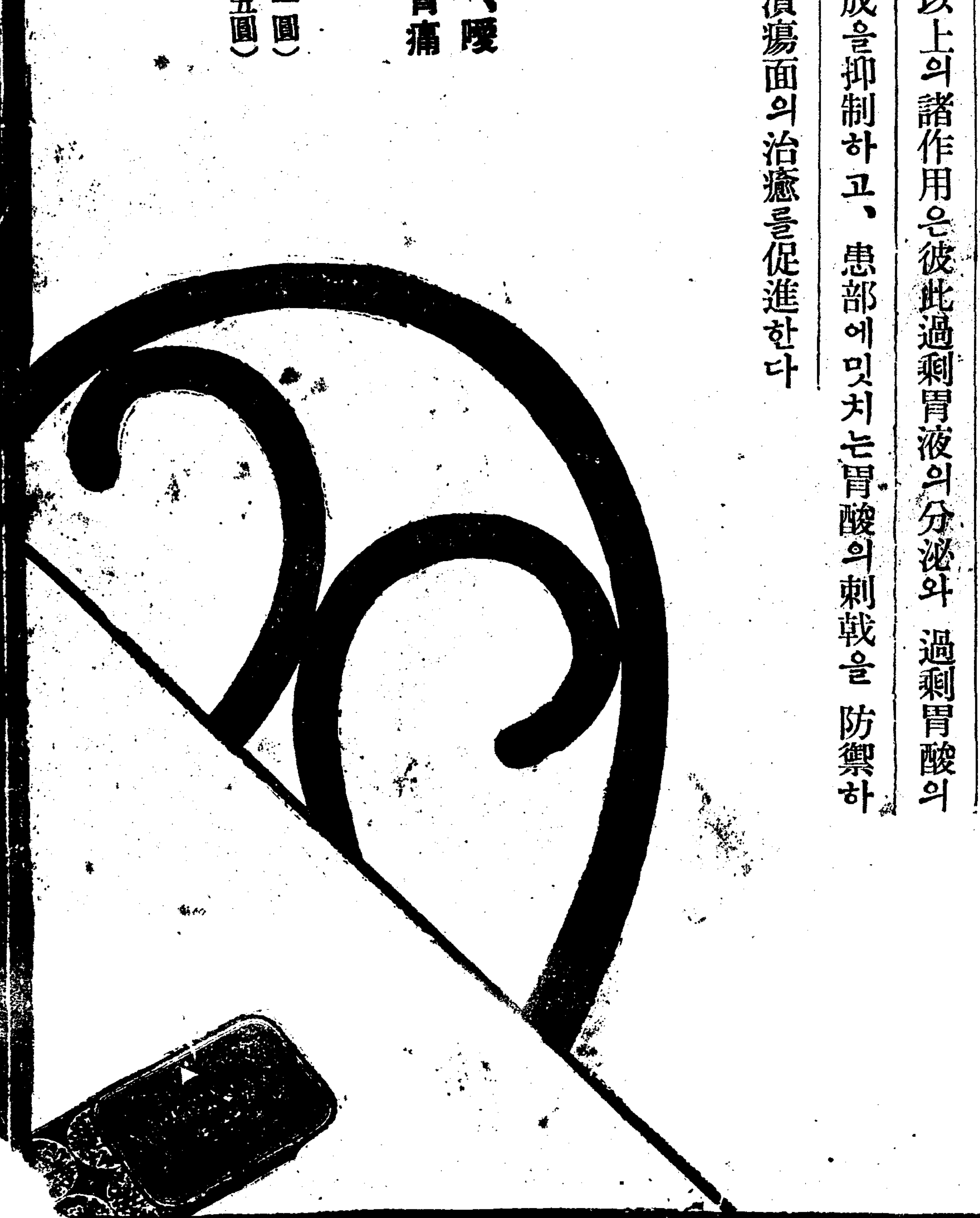
一、ノルモザン錠의主成分은胃酸過多의新治療劑珪酸アルミニウム으로되고고먼저胃粘膜을被覆防護하야患部와潰瘍面에미치는胃液의刺戟을防止하며胃粘膜의全面的防護作用을營爲한다

二、다음에 ノルモザン錠은 胃內에서 徐徐히珪酸과 鹽化アルミニウム으로되여이珪酸은過剩한胃酸이나醱酵酸을中和하야 酸度를低下식히며一方鹽化アルミニウム는 胃腺에收斂作用을미치게하며胃液의分泌를制限하고疼痛을緩解한다

三、또ロートエキス의配伍에依하야 胃粘膜過敏으로생긴疼痛을一層緩和하고고効果를增强식히는結果가된다

以上의諸作用은彼此過剩胃液의分泌와 過剩胃酸의生成을抑制하고、患部에밋치는胃酸의刺戟을 防禦하야潰瘍面의治癒를促進한다

發賣元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關東代理店 株式會社 小西新兵衛商店 東京市日本橋區本町



사진=창 박

家庭

업고、안는것은 나쁜버릇 드리기

어린애 양육은 부인네의 직분이다

잘보살피는 잔조심이 제일

어린애를 기르는것은 여자의 천직입니다 그럼으로 부인네들은 거의 천성으로 어린애기르는법을 알고는잇시마는업고안는것이라던지 기저귀라던지 약먹이는것가튼데대해서 번연이 알면서도 주의를잘못해서 실수하는수가업지안습니다。그럼으로 이러한것을 조금만 주의를 아주 이상적으로 어머니노릇을 할수가 잇지아니할까합니다。

조금만 귀찬타고해서 어린애가 울거나 불거나 내몰는다는드시 애보는사람에 업혀서 내보낸다거나 배가 고프다거나 오줌똥을 싸도 한두시간식 그대로두는것은 말하자면 여자의 천직을 이저버린것이라고아니 할수업습니다。이제 어린애를기르는 부인네들위해서 주의해야할 몃가지말씀을 드리겟습니다。

◇업는것

첫재 어린애들을 업는데 대해서 한말하겟습니다다마는 될수만잇스면 어린애는 업지아니하는것이 제일조습니다。나드리로 누어잇는버릇이 들게하면 업지 안어도 누어서 그대로 잘놀지마는 일찍부터 안거나 업거나하면 그것이 버릇이되여서언제던지 업지아니하면 그대로잇지안습니다

그리고 업는것도 난지 백날이 겨우넘은것을 업게되면 대개는 고개를 들지못하고건들 건강하기때문에 나중에는 머리를 바로가지지못하는 버릇이들 고맙니다바 그럴때는 보드러운 헝겁으로 고개를 바르게한뒤에 잘매여두는것이조습니다 대개 어린애업은것을 보면 고개는뒤으로 잡버지고 어린애 몸덩이는 처느러저 매달린것 가튼것을보는데 이러케업으면 어린애의 신체발육이 나뿔뿐만아니라 나중에 몸모양이 아주고약하게됩니다。그리고 뒤를매는데도 너무 되게조려매면 어린애의 [illegible] 가 눌려서 못쓰게 [illegible] 또는 업는사람의 머리컬이어린애의 눈을지르게되니까애업는사람의머리는 잘매지는것이조코 어린애는 배가 고프면 옷깃을빨거나 애업는사람의 손을 빨거나하니까 옷도될수잇스면 깨끗하게해입히는것이조습니다

◇기저귀

귀저귀는 무슨헝겁이든지 못쓸것을 골라서하는것이 조키는합니다마는 첫재 보드러운것을 쓰는것이조코 다음으로는 자조 빠라서 잘말린것으로 쓰지아니하면 안됩니다 더구나 어머니젓을 먹지안코 우유나 죽가튼것으로 기르는 인공영양아는어머니젓을 먹는애보담은 동오줌이 자즈니까 기저귀도 더만히 만드러두고서 자조 가려주지 아니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기저귀를 채이는데도 고무로 만든카바를 덧채이는것은 아주 못쓰는 일입니다。더말할것업시 어린애에게 고무카바를 채이는것은 어머니로서 수치이라고쫌 생각해두시면 조습니다。더구나 느진봄부터 여름에는 살타구니가 잘붓기가 쉬우니까 기저귀는 늘 깨끗하게 빨어서 잘말려가지고 자조 가려채우지아니하면 안됩니다。그리고 산애에는 아피 두껍고 뒤가 엷게 채이며 계집애는 뒤가 두껍고 아피엷도록 채이는것이 좋습니다。

◇울때모양

어린애가 우는데도 기운차게 우는것은 배가 고프거나 오줌을 쌋거나 드집을 부리는때에만 그런것이니까 건강한 증거이지마는 젓을 먹고난뒤에 졸리는때가 아닌한에는 눈을 채뜨지못하고 겨우 소리를 내여서 우는것은 대개몸이 편치안허서 우는것입니다。그리고 이상스러운소리、마치 목이쉰것가튼 소리로 우는것은대개 기관지병이 생긴것이니까 애들이 우는것을 보아서 좀이상스럽거든 곳시열이잇는가 업는가를보아서 열이잇거든 공연히 해열제만 먹이지말고 머리를 식힌뒤에 대변을 바려서 의사에게진찰을밧는것이 조습니다

중국요리강습회

경성여자 기독청년회주최 본리강습회는 그간 사고로발표한 바와가티 작이십구일 오후한시밧부터 동회관안에서 개강이되

우리차지

강아지

강아지가 졸졸따라 온다。

『돈한푼줄까』

『나는돈도소용업서요』

『그럼이돈으로 과자를 사주면 실타구안컷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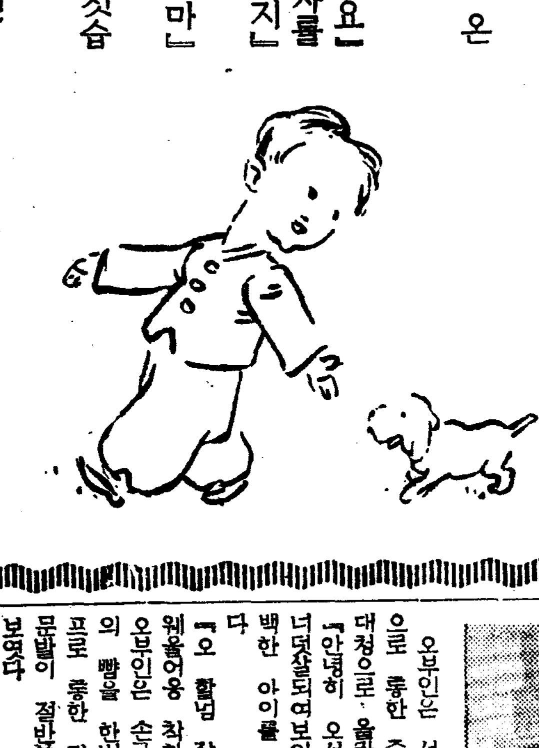
『글세요』

『머리나쓰다둠어주마』

『고맙습니다』

강아지는 꼬리를 첫습니다。

(군산사람 유회원)



라디오

一日(木曜)

◇午後〇時五分(東) 輕音樂 小暮正雄 外

(野球가업스면遊山歌로變更)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 趣味이야기 金惠洙

◇同四時三〇分 럭비試合實況(邦語) 朝鮮鐵道局―對培材高普―龍山球場으로부터中繼(京城)

◇同六時 學年첫말 京城女師 曹在浩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東) 講演 健康保險에對하야(邦語) 內務大臣 河原田稼吉

◇同七時三〇分 趣味講演 東西의美風異俗 李晶燮

◇同八時 歌曲 一、羽調頭擧 二、羽樂 三、環界樂 四、界樂 五、編 徐山玉 張明玉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八時三〇分 漫談 黃材景

◇同九時 (大)獨唱과管絃樂 獨唱 三上孝子 大阪放送交響樂團 指揮 山田耕作

第二放送

◇午前十一時(大) 野球試合

◇午後〇時五分(東) 輕音樂

◇同六時(東) 라디오스케취

◇同六時二五分(東) 講演

◇同七時三〇分 滿洲로부터

◇同八時(東) 라디오風景

◇同八時三〇分(東) 義太夫

◇同九時(大) 獨唱과管絃樂

二日【金曜】

◇午後〇時五分 俗曲 一、念佛 二、굿거리 三、雨淸 四、방아타령 五、靑春歌 六、漢江水打鈴 洋琴 李承煥 短簫 金德福 崔壽成

◇同一時一五分 講演 花草[illegible] 尹聖相

◇同四時 普成專門校入學者發表

◇同五時 延禧專門校入學者發表

◇同六時 橫笛獨奏 一、모래산 二、아침 三、旅愁 四、故鄕의農家 五、꾀꼴새 六、봄바람 七、달 八、즐거운家庭 鄭德潤 피아노伴奏 金吉洪

◇同六時三〇分 講演 森林과人生 農學士 閔心鉉

◇同七時三〇分 講演 紀念植樹

◇[illegible] 金大羽 (博多節外) 一、平壤 二、자진소리 三、[illegible] 四、자진난봉가 五、개성난봉가 六、방아타령 李眞鳳

◇同八時三〇分 流行歌 一、九十里고개 二、물레방아타령 三、눈물의피에로 四、가시면몰나요 五、달빗을안고 六、山中處女 金玉葉 金龍煥 伴奏L.K管絃團

◇同九時 玄琴散調와倂唱 一、散調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二、倂唱 가、短歌…名妓名唱 나、唱劇調…水宮歌 申快童 鼓手 池東根

第一放送

◇午前一一時(大) 野球試合

◇午後〇時五分(東) 和洋合奏

◇同六時(名) 童話

◇同六時二五分(俚諺講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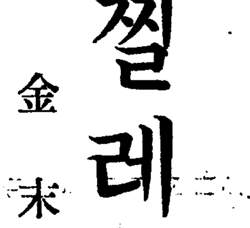
◇同七時三〇分(城) 講演

◇同七時五五分(東) 落語

◇同八時一〇分(東) 東京좀

◇同九時 時事解說

長篇小說



찔레꼿 (2)

金末峰 作 金熊超 畫

여선재의여자(二)

방금고무뽈부로 주룩주룩 정원나무에다 물을뿜고 잇는상노아이가 오부인을 힐긋보자뿜뿌를 나려놓코 허리를 굽힌다 알맛게 넓은 정원에는 드문드문 괴석이 노혀진사이로 철죽과 석죽 방총들이 함초롬 물방울에 저저잇는것이 위선 더위에 시달린 정순의 시선을 서늘하게 만들어주는것이다。

오부인은 서슴서슴 걸어서 안으로 중한 중대문을 드러서서 대청으로 올라섯다。

『안녕히 오서겟서요?』

너덧살되여보이는 몹시얼굴이창백한 아이를 업은 늙은여인이다

『오 할멈 잘잇섯나? 융길이 웨울어옹 착한아기』

오부인은 손구락으로 우는아이의 빰을 한번 간질어주고 여프로 중한 긴마루를 드러설때 문밟이 절반쯤 나려진 안방이 보엿다

『드러와요 어서』

하고 주저주저하고 서잇는 정순을 도라보는것이다

『오선생님 아니서요?』

[illegible]려왓다 그음성이 어데인지 병자의 목소리갓다。

정순은 김부인의 끄으는대로 문밟을 돌고 방으로 드러섯다 이방은 특별히 여름동안에 쓰는방으로 거의 오간이나 되여보이는 넓은방 사면에는 문이 너댓개되고 문마다 문밟이절반식 느리저잇는것이다。

번들번들한 장판은 황마노를 깔아논듯 티끌하나업시 잘소제되여잇다。

『그래 요사인 기분이 좀 어떠서요 아 그냥 누어게서요』

김부인은 초선우에서 비스듬이 몸을 이르키는 중년부인을 건너다보고 눈을 흘기는 시늉을 해보이고 여메 노인 부채를드는것이다。

『이더운날에 이러케 와주서서 참너무도 황감합니다……정원는 손님도 오섯는데…』

주인부인은 기어히 이러나안즈며 반만침 드러나잇는 빼야진것가튼 한손으로 여미는것이다

『그대로 누어게시라니까。……』

『그러지안허도 부인께서 부탁하신 그일때문에 왓서요』

하고 오부인은 정순을 도라[illegible]

『저―내가 길러낸 학생인데 작년봄에 ××보육을 나왓서요 그사이 시골서 교편을잡고잇느가 어떤사정으로…』

『아이고 그러서요? 선생님참 고맙습니다 거저 우리오선생님이시라야 내속을 시원하게 해주신다니까』

주인부인은 당황라적삼속으로보이는 가는팔을 내밀어 김부인의 부승부승한손을 잡아흔들고

『조케 안즈서요』

하고 정순을 바라본다

정순은 방긋이 우스며 한편으로 세워논 무릅을 살며시 내려노앗다 진달래가티 붉어진정순의 얼굴을 물그럼이 드려다보든 주인부인은

『하로길도 연분이라구 이도다 인연인가봐요 안그래요? 오선생님』

『다일놀말슴이야요』

『참 성함이 무어이라셧든가요』

『안정순이라고 불름니다』

대답하는 정순은 또다시 무릅을 세웟다

『안씨라? 귀한성씨군……열아홉인가 스물인가?』

주인부인은 혼자말가티하고

『조혼시절이군』

하고 후르루 한숨을 내쉬는것이다

『스물두살입니다』

하고 정순은 대답을 하면서도

『이게 구술시험(口術試驗)이란말인지』

속으로 생각하고 고개를 도리켜 뜰을 내다보앗다

봉선화 백일홍 접시꼿 백합 장미 추―립의 꼿들이 집서잇게 심어진 화단에는 꿀벌들이 웡웡거리고 날아다니는것이 보인다

수박과 참외를 깍거담은 쟁반이 드러왓다。

『좀잡수서요。이게 성환참외랍니다』

『옹 그리서요 향기가 그럴듯한데요』

오부인은 하인이 갓다논물수건으로 손을 닥그며

『자주인부터 먼저 한쪽드서야지』

『아니는바로조금전에 먹엇는데……그럿주시는거니 하나바들가』

『자 안선생도 어서자서요……인제 두고보면 알겟이지만우리집 아이들은 유난스러워서 정말 종힘이 들게요 거저친아우처럼만 보아주시면 그만이겟지만……』

『댁에서도 우리정순이가 좀미흡한점이 잇드래도 눌러보아주서야만되요 피차섭섭들 남남끼리 한집에 살자면……안그럿습니까? 호호호』

『아―무렴 다이를 말슴이야요?』

시간이 얼마를 갓던지 주인부인과 오부인사이에 그러케 만튼 이야기도 거의끄티나고 정순은 내일아주 이집으로 드러올 약속을하고 이러섯다。

김부인과 정순이 박게들로나와서 대문을 향하여 두어거름 발을 옴길때다 두사람은 지금막 박게서 드러오는 젊은여자와 마조첫다。

몸에 착드러맛는 양장아래로 가볍게 띄놋는 거름거리 약간 드리간듯한 그러나 어데까지던지 색깜안 그두눈 불란서인형처럼 어엽브게 쪽고른 두다리가 정순의맘에 들엇다。

『어데가다 오십니까?』

오부인의 인사겸으로 뭇는 이말에 여자는 대답대신 고개만 깟닥여보일뿐 꼭 당긴입술에 약간미소를 띄채 성큼〈 안으로 드러가 버렷다。

『이대 큰따님이야』

하고 오부인이 정순의 알고시퍼하는 말을 알엇든지

『올봄에 동경서음을 마치고도라왓지』

『어쩌면 저러케 어여뻐사람도 잇슬가요?』

『웨정순이는 누구만못해서?』

『아이 나때위야』

『그애가 저래봐도 부탁[illegible]

드미쓰야 올에 [illegible]

ホルモン配合 榮養クリーム

クラブ美身クリーム

구라부 美身 크림

호루몬이 살결에서吸收되여蘇活하는 優秀한榮養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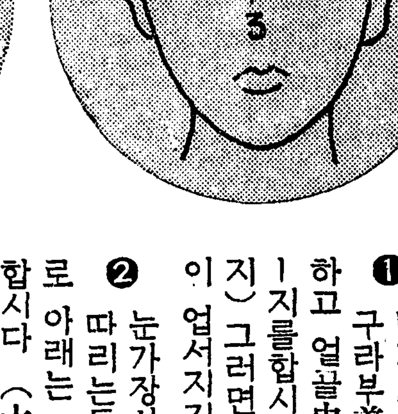
구라부美身크림은 專賣特許綜合호루몬을 配合한 最新最良의 榮養크림입니다 品質은 乳化가 完全하닛까 浸透力이 强하고 刺戟性이업스며 質은 純白하고 極히 緻密하게 펴지여 바르기 조흐며 호루몬이 살결에서부터 吸收되어서 蘇活하고皮膚의殺菌淸掃作用을하여주는外에 거칠지안케하야 白粉下로써는優秀한 크림입니다

綜合호루몬配合에依하야살결에서榮養이吸收됨으로彈力잇는살결을만듭니다

皮膚를淸潔하게保護할뿐아니라 살결의거칠음을막어 高度한潤澤을줍니다

白粉下로쓰시면 白粉이잘먹고、하로終日토록밀리지안는健康化粧이됩니다

호루몬應用맛사―지美容法



❶ 먼저 얼골全體에 호루몬配合 구라부美身크림을 잘 펴지게하고 얼골中央에서 左右로 맛사―지를합시다 (八回부터 十回까지) 그러면 얼골의 수름이 自然이 업서지지오

❷ 눈가장사리는 손으로 가만히 따리는듯하게 눈꺼풀 外側으로 아래는 內側으로 맛사―지를 합시다 (十回乃至十二回) 이方法이 잔수름 주름살을 업새는데 第一입니다

❸ 코는 兩側을螺旋을 들리듯이 위로 맛사―지를합니다(十回乃至十二回) 이部分의 쓸대업는 脂肪의 分泌를막고 白粉이 잘먹도록 하여줍니다

❹ 코아래와 입술 가장자리에서 부터 귀에까지 조곰힘잇게맛사―지를합니다 (十二回쯤) 입술가장자리의 주름도업새지고 불눅하고 어여뿐 뺨이됩니다

❺ 턱에서부터 뺨에 이르기까지 조곰 힘을드려서 맛사―지를 합니다 (八回乃至十回쯤)쌍턱이나 弛後을 업샙니다

注意 맛사―지를하시여거든 호루몬化粧水의구라부乳液으로 그뒤를다거내고 한번더綜合호루몬配合의 구라부美身크림을발너서 榮養을줍니다 이 호루몬맛사―지에는 반드시 구라부美身크림을쓰십시오! 그러치안으면 정말 效果가업습니다! 또한 特히 주름이나 弛緩이만흔분、[illegible] 藥用구라부美身크림(綜合호루몬倍加配合)을 試用하여보십시오

クラブ美身クリーム 三〇セン・四〇セン 五〇セン・八〇セン

藥用クラブ美身クリーム 一圓五〇セン

新哲學의指導原理

—辯證法的世界의彼岸— ②

金基錫

『運動』의現實構造 이것을 우리들은 단순한流動 단순한變遷으로만 생각해버려서는안됩니다 변하지안는게어디잇나 변하지안는存在 변하지안는

眞 理란게어디잇나 모두변하고움숙이거든 自然이 그러코 歷史가그러코 文化가그러코 또 거기에대한 人間의思惟마저그러코—이미 그根本態度가이러매로 오늘의사람들은 理論이나 實踐에잇서서『靜』에대한『動』의優越을 심히 高調 宣揚하고잇슴니다。

運動의論理에대한 限定의論理 대단히 외람된말입니다마는 오늘의哲學은 이限定의 論理란것에 잇서서 自己實踐的說하는方法 또原理에 만나는것이 아니겟슴니까 오늘의 사람들에게 잇서서 運動의論理가 어떠케만히 바르드려지고 또 어떠케 거룩게把握解釋되다고 생각하십니까。못도록『運動』에잇서서보고 또 보노라고만하면 그는 그릇된論理그가난한思索을 가지고서도 선자리에서 자기가 이世紀의 가장새로운 世代에속한다고 자랑할수기잇습니다。

運動의論理 運動의論理 運動의論理。이단순한『動』을 말하는 運動의論理는『動』과함께『靜』을 생각하는限定의論理에로 止揚되는데잇서서 진실한자기에 歸還하는것이아니겟슴니까。오늘에 이르러사람들이 모두들『運動』에 잇서서보자고하면서도 이『運動』自體의

根 本構造에 이르러서는기끈反省과 理解에드리서기를 꺼리고잇지를안슴니까。進化論과辯證法과行動主義。이것을 어떠케들생각하십니까。이것들은 무론生物 實在 또는現實을 說明하는 한개의 立場이되기는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결국 모두들『運動』에잇서서보자는라레스的思惟우에構成되것이아니겟슴니까 말하자면 하나하나가 그자신의 視野에잇서서의 運動의 論理의 粉裝또는 改裝이아니겟슴니까。

움숙이는것은 움숙이지안는일에잇서서 움숙인다。움숙이는것속에는 움숙이지안는일이잇다。一切로 움숙이는 性格이잇다。具體的인 現實的인 運動은 모두 어떤時間的存在가 그자신의性格을 직히고 고집하는過程에잇서서만 展開된다。이것을 오늘의運動의 論理는 어떠케생각하고또가르치게되겟슴니까。

性 格이나할것잇냐。변하면 그만아닌가。그저모두가 변하고 바꾸인다。이러케보면 그만아닌가。무슨時間이니 서도변하지안는것이냐 변하지안코엇면서도변하는일인가。그런귀찬흔이야기를 누가듯기나한다든가 이러케나무라실분도게시겟습니다 하기야 그저 움숙인다고 보아도 조키는합니다。그런데 이움숙임이란무엇인고 움숙인다니 무엇이어떠케움숙이는곳 움숙이는것과 움숙이지안는것과는 어떤모양의關係를가지는곳。작고이러케못고생각해드려가는데『否定的理解』란것이 成立도되는것이아니겟슴니까。생각하기가 성가시다고해서 애당초이모두를 問題로하지안는것은 實在및現實에대한 根源的理解를 또는抛棄하는것이아니겟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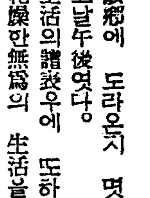
우리들은 흔히 무엇이잇나고합니다。이를테면 산이나 바다나해,달,하늘,별이나。存在는 모두어떤것인 個物에잇서서 주어집니다。산도아니고 바다도아니고그러케아무것도아닌것이 잇겟슴니까。아무것도아닌,전연 個物의意味를 가진것이아닌 어떤것이잇겟슴니까。아무것도아닌한에서 그것은 처음부터어떤것의意味를 가지지못합니다。어떤것의意味를가지지못하는한에서 그것은 存在의 世界속에서 자기를限定

또主觀的인것이 어거되니다。그런데 우리들이 움숙인다고 보는것은 이어떤것으로서의 存在가 운동을 처음부터 어떤것이주어지안는마당에서 움숙임이자기를 이르킬리가잇겟습니까 이運動이 본래存在에 잇서서의 運動이라고보는것이 存在및運動의 理解에대한 가장소중한根幹이됩니다

存 在는 아시다시피 時間的存在가아니겟슴니까。이時間에 잇서서 주어지는것이 存在한것의 原始的 또根源的規定입니다。時間을 벗어나서잇는것이 잇을진대 그것은 벌서 存在가아니고 存在와마조서는것이 아니면 안됩니다。存在와마조서서 存在가 그것을否定하고 그것이 存在를 否定하게되는것이 아니면안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여기서 思索의 混亂을 피하기위하야 存在만을 생각하기로하고 나아가 이存在에잇서서의 運動이 어떤모양의 構造를 가지게되는가를생각해드려가기로하십시다。우리들이 바루아페서『무엇이잇다』를 생각하지안헛슴니까。이『무엇이잇다』는 본대『무엇인것이잇다』이요 또나아가『무엇인것이 時間에 잇서서 무단히 움숙이고 잇다』가 되지안허서는 안됩니다。이제 무엇인것이

時 間에 잇서서 움숙인다 고해도 그것이 아무러케나변하는것이아니고 어데까지던지 자기를직히면서변하는데서 우리들은 단순한運動과구별되는 어느意味의 連續가른것에만나게됩니다。이어느意味의 連續가른것을 우리들의術語로옮겨 性格 또는限定이라고부르려고합니다。



라디오의프로

石耕牛

近來에와서 라디오의 文化的活用範圍란 極度로널려저가면서잇다。勿論 라디오의 가지는 여러가지 屬性 제스스로의 限界를 局限시킨다고 하드래도 또한이러한反面에 따로히 가지는모든特長이 라디오로 하여금 오늘날에 時代의 寵兒를만든所以然이잇슬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文化的利器라고 하드래도 結局은그運用의 如何에 따른바와가티 라디오도 그 放送프로의 編成이라든지 放送者의 人選如何에 따라서 그功效의 高下가 決定될것은 두말할것도업슬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每日듯는AK의放送프로를그야에따라서 이러한 不滿도잇고 저러한 注文도잇슬것이지마는 첫재 프로의編成에 아모런 變化가업다。每日먹는밥도 아침저녁으로 깍두기 김치먹으면 나중에는 厭症이나는것인데 하물며 라디오를 듯는것이 每日가티 가튼프로에 사람만바귀대면 아모런 新鮮한맛도업슬것이 아닌가?依例로 週間時事니 經典解說이니 唱劇調니 하는따름이다

그나마 經典解說가튼것은 더욱 孟浪한것으로서 日前某氏의 解說에는 말솜이엇條가되여서 다만 사탐만 바지어지하다가 脫線이되여서『歐洲의南北戰爭』云云까지 이르럿스니 이러한 校正할수업는 미스테이크은 라디오의 悲哀일른지몰라도 無辜한 聽取者들로 抑鬱하지안흔바는아니다。雅樂이나 唱劇調를一週日에 한두번식 듯는것은 그다지 관계할바가업지마는 이것도 밤마다 듯는것은 그다지 탐탁지안흔일이며 어떤때의 流行歌라는것은 그 歌詞나 調律에잇서서 듯는사람으로하여금 도리어 錯覺을 禁치못하게하는바가잇스니 聽取者의 善良한家庭에 이러한流行歌를 선풍한다는것은압수업는일이다。이러한 프로를 꾸미는것보담은 차라리 레코一드를 걸드래도 좀더 高尙한 名曲을 들려주는것이 조치아니할까? 그리고 經典解說보담은 世界名作解說이나 文藝講演가튼것에 注力하는것이 더意義가잇슬법도하건마는。何如間 한달에 한번식이라도 새것을 듯는것이 우리의 所願이다。

봄의嘆息 二

徐光霽

어린것 두레 冊親과 안해까지를 가지고잇는 君이 한달에 四五十圓으로 軍需이나 物價暴騰인 요사이 어찌 茶한잔을 마음노코 마실수잇겟나? 더구나 先天的인 憂鬱兒 君이 이말에 내천字가 업서질날이 업슬것일세!! 나는 R君을 아니 만낫드러면 조왓슬걸—하고 발길을 喫茶으로 向햇다。E茶房으로 드러갓다。담배煙氣와 엘레트로라에서 흘러저나오는 쟈쓰는 空中에서 서로 싸우는듯이 아롱아롱하엿다。저쪽 구석을 바라보니 K君이 혼자 안저잇다。그역 四五十圓의 月給쟁이다 每日과가티 만나는 親舊가 二週日만에 만나니 서로 반기여 마졋다。月給쟁이 처노코 찬日이나 休憩오는 日曜日을 기다리지 안는사람은 업슬것이다 엇새동안을 고달피 일하다가 일해만에 도라오는 그 日曜日이 얼마나 집거우라만은 下級月給쟁이의 日曜日의 憂鬱은 참으로 말할수업다。普通날가트면 그저 아참에 이러나서 自己의 일보는 冊床아페가서 네時가 되도록 일할때에는 다른雜念은 그리업다 그야 自己가 會社의 무슨 重役이니 會社進行方針에 머리를 아를必要도업고 그저 재미는업슬망정 時間이되나오면 그만이다 至月給이 넉넉한 月給쟁이 가트면 日曜日에 사랑하는 妻子를다리고 郊外도 나가고 틈틈히도 가렷마는 月給날이면 마이나스票만나오는 下級月給쟁이는 오히려 日曜日이면더 답답하고 憂鬱하기 한량업다 이불을쓰고 집에 드러눕자니 제가 난 어린애지만 삐삐우는것이 구찬코 기운업시 안즌 안해는 무엇이업고 무엇을 사야 산다는 소리에 짜증이 나버린다 갈때도업는데 또 옷을 떨입고 박그로 나간나 돈한푼업스니 갈데가 어디가잇나? 自己의 발은 機械的으로 每日 出勤하는 社로 가버린나 혹시 이런때 누가 電話나거려서 술이나 먹으러 나오라하지안나? 안인게는 일이바빠 죽겟슬때 그러케도 술먹으려 나오라는 사람이 만트니 閑寂한 오늘에는 한사람도 電話거는 사람조차 업다 다시 길로나오니 갈길이 막막하나 우선 배가 고프니 便所로 듯는것(每月 月給의면 아니먹것다고 맹세이나 하면서!) 이나 가서 點心불식해먹고 술넘치한 親舊를 꿈나 차저다니나 그날많은 유실히도업다 일직 집에드러가자고 來日 일직 出勤하는것이 上策이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드러간다 眞一 어느會社에서 日曜日에도 出勤하라고 하면 어는 社員이고간에 군소리아니할사람이 업다 『日給은 얼마아니주고 日曜日도 부려먹나』 그러나 여기에月給쟁이의悲哀가 잇스니 놀나는 그日曜日에 더심심하고 쓸쓸하여그래도 제일하는 冊床아플다녀나오는 그下級月給쟁이의 苦衷을 滿天下의 重役諸氏는 賢察하여주기바란다

이K君도 日曜日에 갈데가업서서 社에드러가서 두어時間동안이나 멀거니안젓다가주머니를 터러보니 돈二十錢이잇서서 E茶房한구석을 占領하고 커피 한잔에 陣을친지 無慮 두時間이다 그때에 내가 막드러가든때이다 그에게는내가救世主와가태솟것이다 그의日曜日의憂鬱을 펴줄第一의候補는 나이엇스니까 그래도 K君은 쩌내리스트에서 만난 R君보다는 첨신한 말롱무도되며 藝術을 云云하는 熱血文學家이기때문에 나의氣分은 좀 나젓다 『아이고 가깝해』

이것은 남보고 술사내라는 말이다 가깝하니 바게나가서 술이나 마시잔말이다 그러나 나는 아직斷酒中이 完全히낫지안헛습으로 劇場求景이나가자고하였다 『日曜日에 오직할것이 劇場求景뿐갓나』 그것도 그럴듯하다 每日지녁이면 틈이잇서서 劇場에갈수잇는데 하필 따뜻한 봄日曜日나제 컴컴한 劇場속에가파묻칠必要는업다 나는 E茶房에드러간지 얼마아니되지만 K君은 두시간이나 넘어서 가깝증이 몹시나는모양이다 바게나가야 갈데업고 下宿房이 숙에 드러밖혀잇슬수도 업고 이왕茶房에오기에 누구래도 만나서 日曜日의憂鬱을풀라고決心을한모양이다 『자네 돈 얼마가젓나』 『한 二十圓가젓지』 新刀眞人的이다 K君은 별안간에 얼굴에花色이돈다 『여보게 해낫부터 술먹을수 잇스니 조혼것이하나잇네 가만이잇게』

學生作品 이봄의祈願(一)

世專 李昌植

故鄕에 도라온지 며칠이지난 어느날午後엿다。生活의 諸表우에 또하로의 無味乾燥한無爲의 生活을 그려노흐며 每日가티 되푸리하는 無氣力하고 無聊한 生活이 비저내는 憂鬱한마음을 씻처보려고 나는 집밧글 나섯다。마음속으로는 그무슨 부드러운 손길이 奇蹟的으로 나타나서 어둡고 허전허전한 내마음을 고요히 쓰다듬어주기를 한업시 바라면서……

北國의 봄은 아직도 이르다 빰을 스치는바람이 서울보다는 아모래도 쌀쌀한맛이 잇섯다。그러나 봄은 亦是봄이엿다。쌀쌀한듯한 바람의 觸感속에도어댄지모르게 그윽한 봄의 薰香과 봄의속삭임이 풍기여잇고어룸풀린 시내물에 머리를 담그고 하늑겨거리는 버들가지에도 가벼운 봄의리줌은 흐르고 잇엇다。그리고 거룩함은 소ㅅ바리를 몰고가며 처륭채는 농군의 부주한 발거룸과 밧고랑에 호러저서 달래캐기에 精神업는 나어린處女들의 그림자는 또한 개의 東洋畵的色彩를 가지고무르익은 田園의봄香氣를 吐하고 잇엇다。

머—ㄴ山에 아즈랑이끼여 아물거리며 종달새 한울노피 솟아서 노래부르기에는 아직도철이 이르고、뒷山에서 뻐국새소래 구성지게 들려오지안는다고 그뉘라서大地에 漲溢한 이봄의 香氣를막어낼수가 잇슬것인가? 이른봄 한울놀 날러다니는 『티티』『찌리이』를 잡으려고 山파들을헤매는 철모르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것만으로도 어린봄날의 追憶과함께 오는봄을 느끼기에 足하거니…… 고요히 봄의旋律이 마음의 거문고줄을 뒤흔기여놀것처럼 느껴지고 압山넘어 저—쪽에서 금시에라도 봄의수레바퀴가 나타날것처럼 느껴지는것도 한갓 마음의 錯覺만은 아닐것이라고—이러케生覺하며 한거름 두거름 지향업시거려가고 잇는동안 발길은어느듯 뒷山에 오르는길을 접어들고잇섯다。

한참이나 山길을 기여오르다가 바람조차 지나가기를 이즌 양지짝이 그리워 다리를 쭉ㅣ 뻗고 누으니 아롱아롱의 따뜻한 해벗치 어미품을 갈드는 병아리새끼처럼 간지럽게 가슴복을 파고든다。잇다금식 마른 가랑잎을 흔들며 지나가는 바람소래가 잇을뿐 山골자기는 기프르蔽寂속에 파묻처는대 그속에서 오직 호올로 봄의生命만이 젓줄을 빨고잇는듯。마른풀 미트로 머리를내밀고 나오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은 이봄을歡呼하며 자랑하고 유난히 구수하게 풍기여오는 흙냄새는 이봄의뜻을 가치 나누자는 속삭임이다。

마음을 내려다보니 마을또한 平和스러운 봄꿈속에 잠기여 고요히 누어잇고、한나즐 告하는 닭소래와 푸른하늘을 쪽ㅣ찌저가며 南쪽으로 날러가는 이름모룸새한마리、고요한 이마을의 閑悠한봄情趣를 더한층 도두어주고잇섯다。

어데선가 갈작이 봄하늘을 흔들며 흥겨운『愁心歌』소래 들려오기에 머리를들고 바라보니 지게진樵童이 마즌편언덕길을 추어오르며 손에든『곽쟁이』로 장단을 마추면서 부르는 노래로다。그의가슴속에도 즐거운 봄소식이 깃드렷음인지、이봄과터부러 約束된 그무슨 기쁜꿈이라도 잇음인지、내압배아니로되山골자기를 흔드는樵童의 흥겨운노래도 이마을의 봄風景에는업지못할 한개의 情致라고 生覺햇다。

참으로 한가한 봄날이엿다。조금도 꾸밈업는 自然그대로의 素朴한 봄의 抒情이 흐르고잇는 봄날이엿다。宇宙의 森羅萬像은 모두 이봄과가티 生命을呼吸하며 喜悅과 歡樂속에 잠기여잇는듯하엿다。나는 문득 봄철답지도 안케고요해지는 마음을 느끼며 强烈하게 풍기여오는 田園의봄香氣의 情緖라고는 손톱만치도 느끼보지못한 내가 아니엿던가? 그러든 내가 故鄕의봄을 안고 비록 貧弱하기 짝이 업는것이나마 그래도 봄의 情緖를 느낄수잇섯다는것은 한개의 慶賀스러운일임에 틀림이업다。구래여 그理由를 찻는다면 데파ㅣ트의 쇼ㅣ윈도ㅣ나 산뜻한 女子의 봄옷맵시에서 먼저봄感覺하게되는 都市의봄보다、鄕土色이濃厚하고 追憶이 엉크린 내故鄕의 田園의봄이 더욱 내비위에 맛고 봄답게 느껴진때문인지도 모른다。

……漢詩……

題 新春 押 春 桐岡 考選

佳作一之五 開城府北本町七四二 小石 禹錫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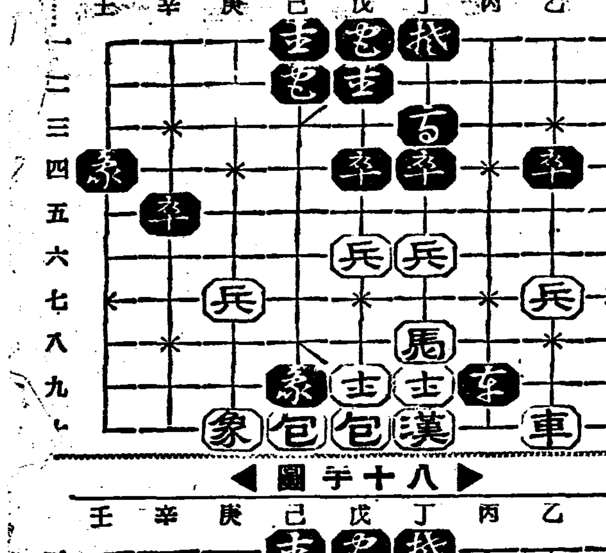
陽和使者報新春 物物逢春色態新
草木生榮回地脈 禽魚得意戲天眞
青雲失路誰憐我 白髮無私自惱人
幾處名園花信早 擬携笻榼踏芳塵

▲校友會誌 第三號 發行所 京城第二公立高等普通學校校友會(非賣品)
▲眞信 第三號 發行所 京城府蓮池町一三六 眞信女學生基督敎青年會 非賣品
▲朝鮮山林會報 三月號 發行所 朝鮮總督府農林局內 朝鮮山林會 振替京城九六八二番 定價三十錢送料一錢
○朝鮮鐵道協會會誌 三月號 發行所 京城府古市町四ノ一三 朝鮮鐵道協會 振替京城一一〇三八番 定價五十錢
▲朝鮮地方行政(京畿道版)四月號 發行所京城府黃金町二丁目六九番地 朝鮮地方行政學會 振替京城二四七〇三番 定價一部五拾錢
▲青年太陽四月號 發行所 東京市赤坂區表町三丁目二四 日本青年文化協會 振替東京六三三六八番 定價十錢
▲聖書朝鮮 四月號 發行所 京城府外崇仁面貞陵里三七八 聖書朝鮮社 振替京城一六五九四番 定價一部金十五錢
▲運輸界 三月號 清涼里 往十里 龍山業者紹介號 發行所 京城府花園町七九 運輸通信社 振替京城一〇九七六番 定價五十錢
▲朝鮮雜筆 四月號 發行所 京城府漢江通六 朝鮮雜筆社 定價五十錢
▲聖火 四月號 發行所 京城府社稷町三一一의七聖火社 振替京城三一三七番 定價一部二十錢
▲慶北公論 第二十七號(月二回) 發行所 大邱府前町六〇 慶北公論社 定價一部二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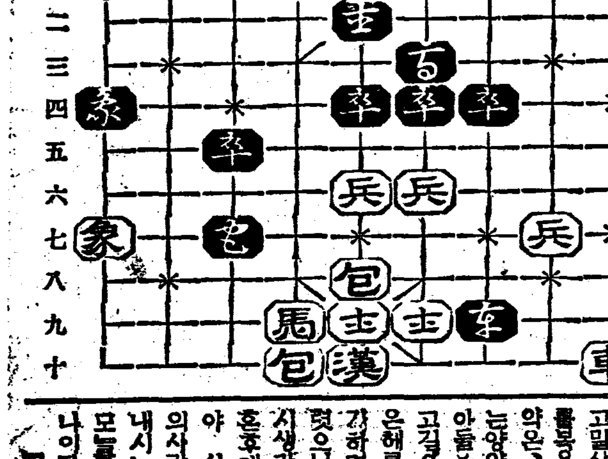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八)

漢先手 李在鳳 楚 金子石

◀圖手十七▶



◀圖手八十▶



丁馬—己九打象 己三包—丁二 戊士包—戊六 乙四包—丙四 丁士漢—戊十
辛五包—庚五 乙七車—甲十 丁三包—庚三 庚七象—壬七 庚三包—庚七打兵

市內各中等學校入學試問題 ⑪ (今年度)

(徽文高普)

算術科

(1) 次ノ各式ヲ計算セヨ。(運算、答)

(イ)78×7—11040÷23

(ロ)$\left(\frac{5}{12}+\frac{7}{30}\right)-\frac{3}{32}\times\frac{8}{15}+\frac{1}{4}$

(ハ)0.68+0.39—13.65÷13

(ニ)次ノ比例式ハ正シイカ、正シクナイカ。

3:4=7:8

(2) 60mヲ隔テテ2本ノ電柱ガアル、此ノ2本ノ電柱ノ間ニ5m毎ニ櫻ヲ植エルニハ幾本ノ櫻ガイルカ。(式、運算、答)

(3) 或人ガ遠足ヲシタ、出發後24km歩イタガマダ全體ノ$\frac{5}{9}$殘ツテ居ル、全體ハ何粁カ、又此ノ時マデ6時間カカツタトスルトマダ何時間何分カカルカ。(式、運算、答)

(4) 水ハ目方デイフト水素1ト酸素8ノ割合デ出來テキル化合物デアル、0.9瓩ノ水ノ中ニアル水素ト酸素ノ目方ハ各幾瓩カ。(式、運算、答)

(5) 35圓デ買入レタ品ニ42圓ノ定價ヲ附ケテ之ヲ定價ノ1割引デ賣ルト幾割ノ益ガアルカ損ガアルカ。(式、運算、答)

(6) 金4000圓ヲ年利5分デ預ケ半年毎ニ利子ヲ元ニ入レルト1年後ノ利子ハ皆デ幾ラニナルカ。(式、運算、答)

(7) 底邊ガ45mデ高サガ23mノ平行四邊形ノ地ト上底ガ35m、下底ガ60m、高サガ19mノ梯形ノ地トハドチラガドレダケ廣イカ。(式、運算、答)

(1) 次ノ各式ヲ計算セヨ。(運算、答)

(イ)2.35×1.05÷(0.47×0.21)

(ロ)$\left(2\frac{5}{7}-1\frac{3}{5}\right)\times\frac{7}{13}-1\frac{5}{8}+3\frac{3}{4}$

(2) 次ノ分數ノ中デ最モ大キイモノト最モ小サイモノヲ選ビ出セ。

$\frac{3}{4}$ $\frac{7}{8}$ $\frac{5}{6}$

(3) 1晝夜ニ3分遲レル時計ヲ或日ノ正午ニ正シイ時計ニ合ハセテ置クト翌日正シイ時計ノ午前8時ニハ何時ヲ指シテキルカ。(式.運算.答)

(4) 自動車ト自轉車ノ速サノ比ハ5:3デアル.自動車ガ4時間ニ160km行クト自轉車ガ64kmヲ行クニハ何時間カカルカ。(式.運算.答)

(5) 營業純益11000圓ノ或商人ノ納メル營業收益稅ハ何程カ.但シ稅率ハ1000圓マデ3.2%デ.之ヲ超エタ分ニツイテハ2.6%デアル。(式.運算.答)

(6) 或人銀行カラ金350圓ヲ3月30日カラ6月1日マデ借リテ利子4圓48錢ヲ拂ツタ.日歩何程カ。(式.運算.答)

(7) 7圓65錢ニ賣レバ原價ノ1割ノ損ガアル品ヲ原價ノ3割儲ケテ賣ツタ.此ノ品ノ賣價ハ幾ラデアツタカ。(式.運算.答)

(8) 二ツノ矩形ガアル.其ノ縦ノ比ハ4:5デ,横ノ比ハ7:6デアル.面積ノ比ヲ求メヨ (式.運算.答)

(9) 眞鍮ノ比重ハ8.4デアルトスレバ長サガ1mデ,切口ノ直徑ガ5cmノ眞鍮ノ圓イ棒ノ重サハ幾キログラムアルカ。但シ1cc水ノ目方ハ1グラムデアル。(式.運算.答)

(普成高普)

國語科第一日

一、次ノ文ヲ讀ンデ、括弧ノアル所ダケヲ『左ノ五問』ニ從ツテ答ヘナサイ。

博士は(1)(天津至孝)の人であつた。渡米一度は(2)(歸朝)して母を慰めたいと、其の機會をうかゞつてゐた。たまへ故鄕の親友が、年老いた母の寫眞をそへて歸國を促すや、遂に意を決し、はるへ太平洋を越えて(3)(稻苗代湖)畔に歸つて來た。(4)(大正四年)の秋(5)(鐵鳥)疆國を埋めた群象は、郷土が生んだ此の大學者を擧つて迎へた。

(1)『天津至孝』とはどういふ意味ですか。
(2)『歸朝』といふのは何のことですか。
(3)『稻苗代湖』は何縣にありますか。
(4)『大正四年』は今から何年前ですか。
(5)『鐵鳥』の生んだ大學者とは、何といふ人ですか。

一、次ノ文ノ括弧ノ引イテアル所ニ、ヨクアテハマル語句ヲ書キナサイ。

例……ドイツ少年全體の(はぢだ)(恥辱)

(1)馬や牛が(ゆつたり)と草をはむ。
(2)儲も(すつかりなほり)ました。
(3)(しづかでおくぶかい)氣がひしへと身に迫る。
(4)新興日本の實力を(おもひのこすところなく)發揮した。
(5)今病氣で(うなつて)ゐます

三、次ノ漢字ヲ組合セテ熟語ヲ五ツ作リナサイ。

[illegible]、島、石、[illegible]、[illegible]、流、[illegible]、壯、困、秋、

(1) (2) (3) (4) (5)

四、次ノ言葉ニ對照スル言葉カ、或ハ反對トナル言葉ヲ( )ノ中ニ入レナサイ。

(1)夕刊( ) (2)嬉しい( ) (3)冷やす( ) (4)乾かす( ) (5)會ふ( ) (6)前進( ) (7)絶頂( ) (8)[illegible]天( ) (9)[illegible]( ) (10)[illegible]( )

五、次ノ語ニ誤ツタ字ガアツタナラ( )ノ中ニ直シナサイ。

(1)成[illegible]( ) (2)乾[illegible]( ) (3)[illegible]( ) (4)[illegible]( ) (5)[illegible]( ) (6)自[illegible]車( ) (7)[illegible]( ) (8)[illegible]( ) (9)[illegible]( ) (10)[illegible]( )

오래된부인병도 손쉽게근치할수잇고

애기를못낫는부인은 애기를나케하는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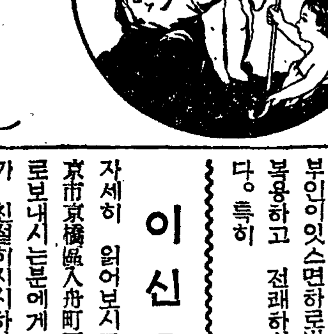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면 빈섬어살아지고 금잔디는푸르러지고산천초목에는 다시살이나고 꽃치필때에는 여러가지잡된부인 병의고통은 더욱심해지고 재발하기도쉬우므로 할개를치고 힘차게이러나야할 우리조선부인은특히주의하지안흐면안됩니다

월경이불순하고 애기못배는것이니 하로밧비부인병에 특효가잇는내복약명지모를 복용하시기바라나이다 여기서 부인의월경불순과자궁병대하증을근치하게하는내복약『명지모』를복용하시면 얼굴에화색이돌고 주름살이펴지고 아름다워지며손발이더워지고 현저히정혈작용을하야 체내의독소를전부명상식히고 병약해진세포를회복식혀주는결과 혈색이청결하게되는동시에 여승의호르몬이왕성하야지면 불순하던월경이순조롭게되며 대하증이근치됩니다 애기를못낫는부인의대부분은 월경불순 자궁병대하증으로하야애기를못배는것이니 자궁병대하증이근치되고 월경이순조롭게되면 틀림업시포태하야출산하게될것입니다 『명지모』는 여자의학박사가실험해보고 조선부인의체질에꼭맛는양약이라고증명하엿스므로 모든부인병에적당할뿐만안이라 젊은부인의건강을회복식히므로 약효에탄복하야 한사람두사람에게 작고선전되야 부인병대하증 자궁병을근치하고 애기를못낫는부인들께서 귀여운애기를출산하신실례가허다함은 전래자가증명하오니 여러분기정에 자궁병대하증기는 부인병으로고통하는부인이잇스면하루밧비『명지모』를복용하고 전래하시기 바라나이다。

여러분가운데 나는 엇재서애기를 못낫는가하는만상은 평회한가정의 주추돌이되시여 시부모와남편시중에 품을하시는젊은부인들의 애달픈하소연이며 설움과바다를 한몸에통지어고말삼하시는 눈물겨운고합일것입니다。참으로 세상에는귀여운보배와귀여운물건이만호나 방긋거리고재롱부리는 아해들의어리광이야말로 무엇보다도더욱탐스러우며 귀여울것이니 그의부모들은 하로날의모든쓰림과고통을 재롱부리는 천사와가튼아해들로하야금모도이저버리게되며 내일의희망을 새로히차게 갓게될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랑에넘치던가정도 귀여운아드님을낫치못하면 드듸여쓸쓸한가정생활을보내게되며 쓰라린세월을보내시는분이 얼마나만습니까?그러나 대부분은 그것을자기의팔자나 전세의인연이라고 신세한탄을하시는모양인데 근래와가티의약이 발달되는때에 부인병을근치못할까닭이업습니다 여기서 부인이 모든원고의폐풍을 거더치고 부부협력하야 결혼후에 애기를못나시는 잇는명지모로 원인치료법을실행하고 세상에도 귀여운보배 아드님을나으신 반가운소식을전하고자합니다

림질성자궁병이 五주일분한제로 근치되여생남!

前略 저는 결혼한지 일년만에첫아들을나코그후에남편게서 한번출입후、곳한탓으로의외에림질이 발생하야 그병은 저에게까지전염되여서 오줌눌때마다 아래가따갑고 압흔것은 일일히 말할수도업고 아래배와 허리가 압흐고 대하증이심하기시작하야 몸시고통으로지내며 한약도 여러가지먹어보앗고 신문에광고하는 매약도여러가지 써보앗스나 꼭꼭내 약효를보지못하고 八년동안에수천원의 치료비를허비하엿스나 병은낫지안흘뿐안이라 점점더하야초산후에는 다시아해도못낫든차에 지금부터三년전에 조선일보에서『명지모』의광고를보니 三十여년간 역사가잇는양약이라거에 또한번속어볼작정으로 五원짜리한제를주문하야 복용하니 점점병세가감하야지며 대하증이줄고 월경이순조롭게되기시작하지 두달만에 무슨기미가잇는듯하기에 이상스럽게역이고지내던중에 어느듯입신하야 작년三월에 옥과가튼아들을나어서 하도깃부기에 그아해의이름을 오원이라 명지모를먹고낫키때문에 오원짜리명지모라고지엿습니다 의사의말도 신용못할것은 八년동안이나 림질로고통하는부인은 애기를낫수업다고말삼햇는데도 五원짜리명지모를복용하고 아들을나어스니 이약은、우리조선부인의체질에꼭맛는양약이라고밋슴니다 그래서아들을 원집안에서 큰보물로알고 귀경으는중에 명지모본포주인의은혜를 만분지일이라도보답하고 강하며 불구하야 편지한장못드렷으니 용서하시기바라오며 다시생각하건대 조선부인들께서결혼후에 애기를못나시는탓으로하야 시부모에게구박을밧고 남편의사랑을빼기고 눈물로세월을보내시는부인들의 모하는의미로『명지모』를선전하야 만매해드리고자하나이다 (後略) 『滿州部・吳正圭氏夫人談』



대하증이홀으는 부인병의 원인과치료법

이신문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오려서 東京市京橋區入舟町三 笹岡藥房으로보내시는분에게 七大의학박사가 친절히지시하야 조선말로알기쉽게 자세히쓴 부인병자태치료서와명지모의설명서를 누구에게던지 거저드리오니하로밧비청구하시기바라나이다 이부인병자태치료서는 명지모본포에서 조선부인에게의학지식을보급식히기위하야 한권식거저드리는것이니 약을주문하지안는부인이라도 주저말고엽서로청구하시기바라오며 『명지모』는각지유명약방에서도판매하고 본포에서는약을 선금으로주문하시는분에게 송료를본포에서 부담해드리오며 약가는

藥價 六日分 一圓 十三日分 二圓 二十五日分 三圓 三十五日分 五圓

본포에는 여러분의체질과병세에꼭맛는 가감약이잇스니 본포로직접주문하고자하는분은 병세만자세히적어서보내시면 (물론절대로비밀로취급해드립니다) 병세에꼭맛는약을대금인환으로보내드립니다

명지모의약효: 월경불순 자궁출혈 하복요통 두통현기 히스테리 난소염 백대하증 적대하증 수족냉증 자궁경련 수란관염 산전산후

命之母本舖 東京市京橋區入舟町三 笹岡藥房 振替東京五〇五〇番

若草劇場
(1) パ社ニュース 11·00 2·35 6·40
(2) 1937年の大放送 11·10 2·45 6·50
(3) 東日・大每ニュース 12·45 4·20 8·30
(4) 良人の貞操 12·55 4·30 8·40
パラマウント作・ミッチェルライゼン監督ラヂオ界人… (4)P・C・L作・入江たか子・高田稔・千葉早智子

優美館 四月一日ヨリ八日間 晝夜三回 大人・五〇 學生小人・三〇 電光三五九五
實錄 大盜傳 監督 金蘇峰 出演 金振門 李慶善 金寶圭 李安然 乞期待
아리랑고개 文藝峰 盧載信 文秀一 李春汀 出演 監督 洪吐無 撮影 李明雨
薔花紅蓮傳 錄音 中川堯史 李弼雨 出演 文藝峰 鄭京順 李錦龍 李春汀 監督 洪吐無 撮影 李明雨 林雲鶴 京城撮影所超特作全發聲!
鮮名作大會 京城撮影所超特作全發聲 監督 洪吐無 撮影 李明雨

桃花劇場 三月二十九日부터向三日間 電(龍)一三三三番
時代劇 流れ雲三度笠 監督…阜丸弘氏 主演…山內弘氏
次週=海賊ブギー=まんじ蜘蛛 孝女シヱ
◇マキノ超特作オール・トーキー 喜劇王 조·E·부라운氏主演 野球爆笑大活劇 부라운怪投手
◇와나내쇼날超特作全發聲日本版 監督…레이·엔라이트 主演…레이크·조ㅣ엘氏 助演…루비·키라ㅣ孃
海洋劇 바다를가면 監督…프랑크포사ㅣ리氏
◇三月二十九日부터每日晝一回 낫一時 밤七時始映 大衆料金 階上二十錢 階下十錢均一
◇와너내쇼날超特作全發聲(三大巨篇的名篇大公開)

明治座 3月29日より4月1日まで 上映時間表
京日世界ニュース 11·00 2·56 7·00
丁半雲の夜話 11·10 3·07 7·10
朝日世界ニュース 大阪夏の陣豫告篇 12·43 4·40 8·37
曉の爆擊隊 1·10 5·06 9·00

往十里町 光武劇場
汀건너마을 紳士渡世 (この三人)

四月一日은「에이푸릴·풀」이라하야 이날이限해서는 아무런 거짓말을하야도 상관업다는날이다。거짓말하는것은 물론업는罪다。그러나 단하로동안 ー四月一日 마는 누구나 이罪를지어도 罪되지안노며 도리어 이罪아닌罪를 짓지안혼것이 쑥스러운것에 가깝도록되여잇다。그러기에 이날은 친구나愛人에게 그럴듯한거짓말을 하여서 그로하야금 가슴을 뜻도록하는것도 조흐며 눈물을 흘려가며 우도록 하는것도조흘일이다。

이것은 米國에서 流行하는것인데 이날이 거짓말하는것은 法的으로나 道德的으로 아무런 制裁도밧지안는것이다。

이리하야 이날은 世界의 어느곳에서나 거짓말이도라다니며 이것이 가저온 여러가지 우수운일로 말미아마 마음것웃고살수잇는 진거운 날이기도하다。

편지로매저진因緣

美男로버ー트텔라 朝鮮女性에게請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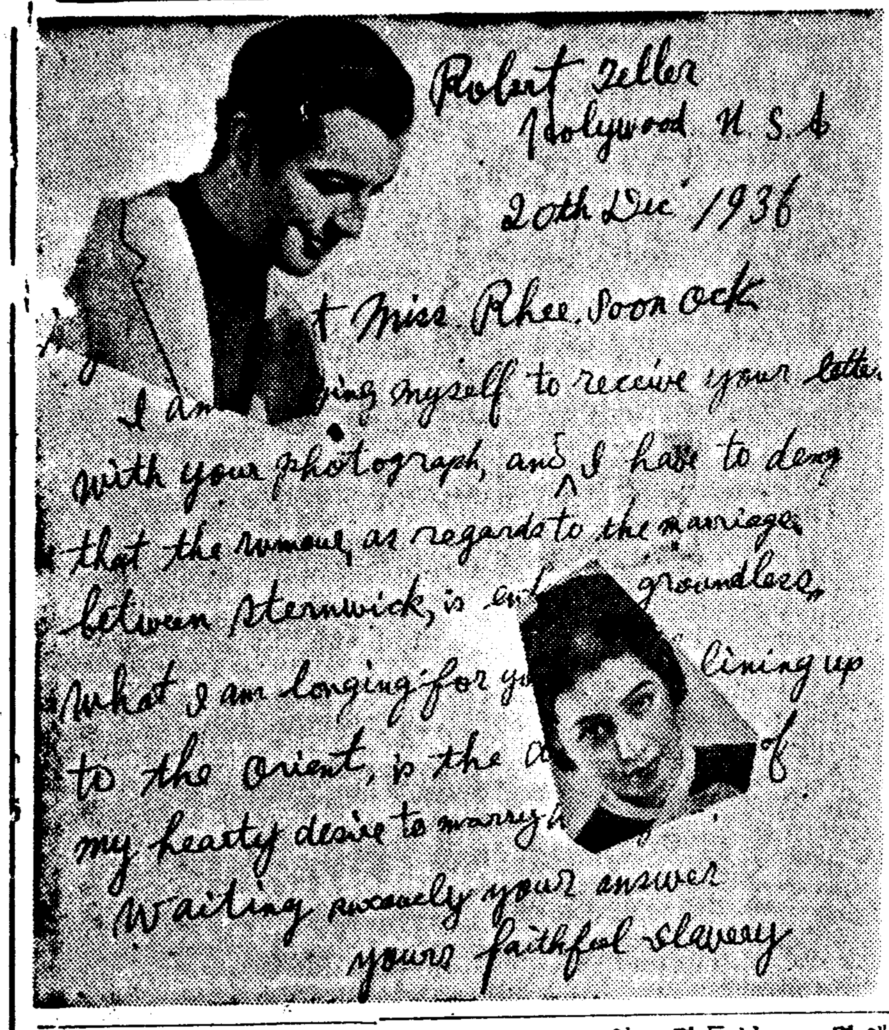
洋品店의無名女人에게 뜻하지안이한반가운消息

지금 全世界 女性의 사랑을 獨차지하고잇는 終林의美男ーー 로버ー트·텔라 로부터 朝鮮의 한개無名女人에 게請婚편지가와서 거리의話題 거리가되고잇다

이事實은 멧칠前終林어느신 문에 굉장히紹介되여서센세이 슌을이르킨것인데정작朝鮮에서는 모르고잇더니이다 편지를바든幸運의女子는 市內鐘路五丁目에서 조그마한 洋品가개를 經營하고 잇는 李順玉孃이다 今年스물한 살로서 三年前에 女子高普를나온이다 이消息을가지고 孃을차즈니 謙遜한態度로 다음과가티 말하엿다

『편지는 두달前에 바든일이잇슴니다 그러나 아직어떠케해야조홀지 몰라서 그냥두엇나도 안코 秘密에 부치고 잇섯는데 어떠케 아시엿슴니까 그이(텔라)는 내가映畵를 조와함으로 작난비슷하게『당신을 그리워한다』고 편지속에 사진을 너허서 보처본것이 저편에서 뜻밧게 約婚하자고 回答이 왓습디다 스탄위크와는 結婚하지 안켓다고 하엿습디다 云云』

실업슨소리 마러라 로버ー트、텔라가 무슨기겁을 한다고 朝鮮의 無名女人에게 請婚하겟는가 이것은 멀정한 記者의 거짓말에 지나지안흐니 이것은「에이푸릴·풀」에거짓말 리레記事로 한번 讀者를 속여본것이다 이날에만 限해서 단한번속이는것이다



(사진은 텔라와 李順玉텔라의 편지)

五千圓의꿈

春城

작년사월이다。××지를 경영하다가、파산을당하고 집을잡혀먹고 몸에빠지생쥐처럼 기운업시 지내든때이다。어느날 저녁 곤세루 양복을입은 스마트한청년이 문간에와서 호기잇게 내일홈을 눌럿다。

『누구서요?』

『네……』

그는한창 명함을 내손에쥐여주엇다。얼른바더보니『××일보 양주지국 김보』라고 써잇다。

나는 그를내방으로 안내하엿다 이말 저말멧마디 이야기를 교환하는동안에 이친구야말로 수작이 청산유수엿다。문학을조아하고 쩌날리스트로 한번쓰시기를원하고 또는直단집이 유여하고 어머니허락만계시면 돈을맘대로 쓸수잇고、또는 어머니는 자기의말이면 아니듯는말이 별로업다고ー참말 칠칠맛에 아이쓰코람먹는것보다도 더 서운한말을 느려노앗다。그리고 그의말이 ××지를 자기에게 내여맥기면 일금 오천원하나만은 불일내로 출자할수잇스니 가치 일해봄이 어떠냐고물엇다。이말이야말로 배고픈사람에게 밥을 먹겟느냐고 못는말과 한가지다 내게 잇서서는 가뭄에 단비가튼 전래의 복음이엇다。

『불감청이언정 고소원』

이라고 나는당장에오케를노앗다 능청마진이친구는내손을 잡으며

『그러면 우리 한번 크게 할약해봅시다 원래 사회친구잇겟소 나를 동생으로만 알고 잘 지도해주구려』

하고 간곡한 인사를 하엿다。그리하여 그는 당장에 오천원을 낸다는 서약을하고 내일 자기집구경도 할겸 양주로 가자는것이엇다。그래서 명일오전구시에 종로삼정목 ○○자동차회사에서 서로만나 함께 그의집을 가기로 약속을 철석가티하엿다。이러케되고보니 오래동안쪼구리고울든농중의새가 첨공을께치고 창공으로날아가듯이 엇개가웃직하엿다。그래서 이런말、저런말、압날의빗나푸란을 이야기하는동안에 그청년은 잠간여비가 떠러젓스나 돈을꾸어주면 내일자기집에서 의심업시 주겟다는것이다。마음이 언제나 색시갓고 누구를 속여본일이업는나는 내마음을 미더서 그를 믿고 일금오원을내여주엇다。그후 그청년은 명일오전 구시에 어기지말고 종로서 만나자고 재삼다졋다。나는 걱정말라고 대답하고 그를 보내주엇다 그날밤에 나는五千원의 꿈을단단이 꾸고 다음날 아침에 면도를하고 양복을 가라입고 히색이 만면하여 종로 삼정목××자동차회사로갓다。몬저 구내를 살펴보니 그청년은 오지안헛다。시계를 보니 아직두 여덟시 오십분이엇다。나는 빗난 아침 해를 등에지고 왓다 갓다 거닐며 큰 행복을 기다리는 사자가리 호기잇게 기침을 하엿다。이제 오려니 불원 오러니하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을 눈이 동구라케 살펴보앗다 그러나 그청년은 그림자두 볼수가업섯다。아홉시 열시 열한시ーー이러케 지나간후에야 나는 쌀을사야할 돈유원으로 오천원의 꿈을 하루밤사는것을잘 알엇다。실로 어리석은 꿈이엇다。사월의 한편비가엿다。

산송장

朴斯月

오후한시가 넘엇는데 아직점심도 먹지못하고 오늘원고의마금을 하기에 정신을일코잇스려니 급사아이가 수화기를 넘겨주면서 전화가 왓다고 하얏다

『최가 죽엇서요』

어떤여인의 목소리다

보통전화면『당신이 누구시라느니요』하고 무러본뒤에 이야기가 시작되여야 할것인데 이것은 아무인사도 서설도업시 그냥 숨가쁜목소리로 최가죽엇다한다

『최라니 누구말입니까』나는최란사람이 나와친한태식군을 가르킨이란것을 알앗스나 죽엇다는 사실이 너무나 어이업기로 다시한번 무러보면서 저쪽대답에『태식』이란말이 나오지안헛스면하고 기다렷다

『최태식이말입니다』

지금은 다시무러볼것도업거니와 눈이뱅뱅돌리고 정신이아득하야 무엇이라고 말을하얏스면 조홀지 몰랏다。

『그래 무슨병으로 어디서 죽엇단말입니까』

『자기하숙에서 오늘오정때 죽엇는데 선생님께을 작고하면서 죽엇세요』

『하숙에서 죽다니 어제밤에저하구 차먹으려도라다니던사람인데……』

『그래요 아침밥을먹고 책상머리에 안젓던사람이그냥 머리가 아프다하더니 그만자리에 누은채이러나지못햇서요』

나는 전화를끈허버리고멀거니 안저서 생각해보앗다。어제밤에 아무러치도안케 평소와가티 기운차게 이야기하며 차마시려도라다니던 최가 하로밤사이에유명을 달리하얏스니 세상일이란 이다지 변할수잇스며 인생이란 이다지 보잘것업는것인가 하고 새삼스러히 약다 눈물도 나지안흔 슬픈사실이엿다。

나이 스물여섯에 한창청운의 꿈을 꾸고잇던 최가 그모양으로 볼섭게죽엇단말이나 더욱그는 약혼한애인이잇지안흔가 죽음아페 약혼한 애인이잇다는것이 무슨 큰 애석함이되리요마는 꼿다운 청춘이땅우에 사라젓다는 그것이 안타가웟다 공무도 공무려니와 친구의 시체라도 내손이 아니면치울사람이 업다 쓰던원고를 여페사람에게 넘겨서 꼿바어달라고부탁하고그날일을 모조리 맛긴다음정신업시 최의하숙인서교정으로 자동차를 모랏다。연히방송국여페잇는 최군의하숙집에 이르자 사람이 죽은집이니 웅당히 들쎠들쎠하리하고 대문을열고 드러서니 말숙한 뜰에 개암한머리 알는거며지안코 최군의 거처하는방엔문이 다친채 쓸쓸하다。하숙집 여주인이 마루턱에 나와서서 어느때나 마찬가지로 반겨주엇다。

『최군은 어떠케되엿서요』하고 위선 무러보앗다。

『글세요 오늘은……』

그는무엇이 무어인지 모르는 모양이엿다。최군의방문을 여러보니 방안은깨끗이 치워노코책한권이 방숭펴인채 책상우에언처잇고 최군은 시체도 잇지안헛다

『벌서 시체는 내여갓습니까』

나는친구의 시체나마 내손으로 치워주지못하엿슴이 안타가워서

『시체라니요?』

하숙주인은 눈이 동그래젓다

『최가죽엇다고 전화가 왓기에 나왓는데』

シレネギター

最良ノ品質ト最低ノ値段!!

(業者ニ限リ御型錄呈)

ナカキオルガン・軍隊ラッパ NMI音樂器・ハーモニカ 製造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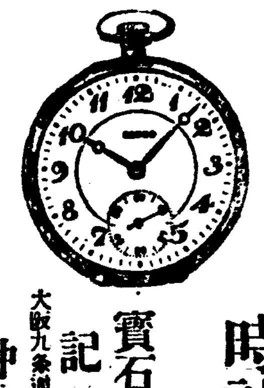
大阪市南區日本橋筋四丁目

中井樂器店

電戎五一二三番

東洋에서第一조흔品을特히싸게팝니다

時計、貴金屬



다이야몬도 ダイヤモント

寶石類、眼鏡、銀器

메다루 メタル

記念品

大阪九条通一丁目八一

仲庭時計商店

電話西{四七〇七 四二〇一}番

商報送呈 郵券五錢要ス 振替大阪八壹一四一番

春物 羅紗洋服荷揃

大衆向 三ツ揃オーバズボン

詰衿上下服朝鮮人向レンコート

大阪市東區谷町二丁目十八番地

田中宇商會

電話東三〇三五番

店章御印ニ限リ定價表進呈

流行 袋物製造卸

特價品豐富・型錄進呈

登錄商標 (福)

大阪市東區博勞町二丁目

福本又兵衛商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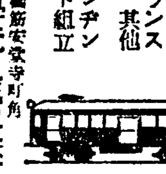
電話船場 参二〇五 振替大阪七九〇八番

朝日科學玩具

新版カタログ 郵券五錢要ス

電氣應用ー汽車、電氣機關車、電車、航外ボート、信號機、万能モーター、トランス、精密電氣機關車 其他

蒸汽應用ー各種エンヂン モーターボート組立 部分品



大阪市南區心齋橋筋安堂寺町角

朝日科學玩具營業所

振替大阪五八三九・電話船場一四八八

信用잇는 卸のデパート

日本百貨均一卸協會

定評ある各種雑貨 業者向商報送呈・要四錢

均一雑ナ各種商品 仕入モ裕ニ本部報一冊ニテ足ル

大阪市東區久寶寺町二丁目 小間物ビル

人絹端切各種卸

◎モスリン、綿ネル、絹ポプリン、本セル、金巾、四綫、朱子、人絹

新規小賣開業者에게는懇切히指導합니다

大阪市南區瓦屋橋東詰 大阪南局第二三〇號函

(商報送呈) 見本은要五十錢(切手)

津村合資會社

電話南 二四八 振替大阪 一三八三九番

食料紅 オブラード バター 製菓材料 菓實香料 商報贈呈

大阪市西淀川區大仁本町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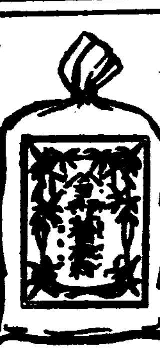
西本商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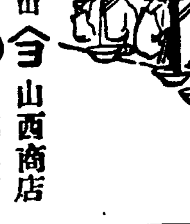
新興からし

冷소면・冷우동 豆腐其他여려가지반찬에고초가루

新興 番椒粉 고초가루

밀국수・우동 豆腐 其他여려가지반찬의 고초가루





釜山 山西商店

" 阿部本店

京城 辻本商店

" 吉川商店

平壤 桑田商店

" 江口商店

新義州 山七商會

" 中山商店

元山 小野本店

" 重枝商店

咸興 西村商店

" 德元商店

類似品이만히잇사오니 商標에注意하시오

月美人印 カレーからしコシヨー製造本舖

1937年型フオードV・8乘用車

目下陳列中

フオード特約販賣店

平南自動車商會 平壤府濱町五・電話2240 サービス部858

楠本商店 京城府若草町 電話{本局長2975 本局4235 本局5253 龍山1558 ボテー工場}

朝鮮鐵道株式會社自動車販賣所 釜山府榮町一ノ四一・電話859・1259

イトウ商會 清津府彌生町六・電話2321

九大商會 全州府本町一丁目・電話464

平壤西浦一帶에 痲疹大猖獗
벌서死亡者十八名

【平壤】대동군 서포일대(西浦一帶)에는 금년정월이래 마진(痲疹)이 창궐하여 발서 십팔명의 사상자를내엿고 삼월중순부터는 더욱맹렬하여 이부락에 일백삼십여명의 환자가 생기여 일부락이 전멸상태에 빠젓다 또 평양부내에도 마진이창궐하여 삼백여명의 환자가 속출하여 사망자도 상당한수짜에달하엿슴으로 위생당국은 예방과 치료에 전력을다하고잇다 한다

平南教員移動
二百六十名多數

【平壤】평안남도의 초등교원의 정기대이동은 삼십일일에 발표키로 되엿는데 이번의 이동은 초등학교에 학급이 증가되는만큼 교원의부족을 느기고 잇스므로 자발식용퇴자를 제한외에 권고는 하지안키로되여 말하자면 매우녕양한이동이라고할것이다

용퇴자는 교장급세명훈도십륙명 합계십구명으로 사범학교의 졸업생 백이십삼명을 배치키로 되엿고 타도와 일본내지에서 십삼명만을 채용키로 되엿스므로 이동총수는 이백륙십명에달한다

여기에요하는비용은 이만이천원으로 예상되는터이며 주임관대우훈도의승진은 리시가의의회를 과를 요하는만큼 일일오전에나 발표를보게되엿다 한다

不汗黨四名
鐵片두루며"돈내라!"
目的未達코쌀만서섬奪去

놈…들…며…強…盜…또…跋…扈

【群山】지난이십륙일 오후십이시경 옥구군림피면미원리(沃溝郡臨陂面米院里) 홍범철(洪範徹)씨의집에 사인조강도가 침입하야 철편(鐵片)을 휘둘르며 돈을내라고한바 맛침 당야에 전기주인이 업섯슴으로 그들은하는수업시 쌀만서섬을 가지고 도주하얏다는바 이급보를접한 군산서에서는 방금범인수사게 전력을기우리고 잇는중이라 한다

永川郡에도 路上强盜

【大邱】경상북도내에 또강도사건이 발생하엿다 ─ 지난이십륙일 오후일곱시반쯤에 영천군금호면 신대동(永川郡琴湖面新垈洞) 전태현(田太鉉)(三○)은 금호면 원기동(元基洞)동네박그로지나갈지음에 나이 삼십전후되여보이는 양복입은 청년한명이나타나서 머리를따려 졸도케하고 속주머니에든 십원짜리지페아홉장과 오원짜리한장 일원짜리석장 합계 구십팔원을 강탈도주하엿다 이급보를바든 소관경찰서에서는 곳 비상선을 느리고 차젓스나 아즉 체포치못하엿다

溫陽五峰庵에 또强盜가侵入

【牙山】기보=충남아산군온양면 좌부리(牙山郡溫陽面左部里) 오봉암(五峰庵)에 끄봉강도가 침입하여 주지리상락(李相洛)을 위협하고 현금 회중시계등을 강탈도주하엿다함은 기보한바어니와 사건 발생한지 이십일이나되는 지난 이십오일 오후일곱시경에 또오봉암에 강도가 침입하엿다 이급보를 접한 온양서에서는 대경실색하여 오양소방조원까지 총출동을 시키여 범인수사에노력하엿스나 체포치못하고 초조중이든바 지난이십륙일에아산군도고면 룡원리(道高面龍院里)에 사는 김모(金某)가 전기회중시계를 가지고 온양 온천명신당시계점에가서 수선하는것을 온양서원이 다려다가 취조한결과 자기이웃집에서 고용하는자에게 샀다하므로 그서 경무주임이 형사수명을 대동하고 자동차를모라 현장으로 달려갓든바 범인은 발서 눈치를 채이고 산중으로 도주하는것을 추격해서 일장격투후에 체포하엿다는데 그자는 본적을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원하리에두고 사방으로 도라다니는 한순오(韓順五)라는자로 전기 오봉암에 두번이나 침입한 사실을 전부 자백하엿스며 그외에도 여죄가 상당한 모양이라고 한다

運動場擴張等으로 議員間質疑續出
鎭南浦府會第三日

【鎭南浦】진남포부예산회의제삼일은 지난삼십일오후한시부터개속개회되엿다 제일착으로 공설운동장(公設運動場)이전확장안에 대하여 현재운동장처분과 후보지선택등문제로의원간에 의사가 충돌되여 장시간갑론을박하다가 결국원안대로 결론을 짓고 황치수(黃致秀)의원은 체육장려보조비에대하여 현재진남포에는체육협회와 체육회등두체육단체가잇는바 작년례를들면 보조액이동일하지아넛스니 금년도에는보조금액을 동일하게하라는 요망이 잇서 부당국도 금년부터는 동일한 금액을보조키로하겟다고언명하엿스며 조정호(趙鼎鎬)의원은 토목비에관하여 민간사업보다너무과대한 예산을세워주는것은 불가하다 금년신축이전되는 도살장(屠殺場)신축예산을 보아도한평에 일백오십원식을 계상하엿스니 [illegible] 것이니만치 선처하기를 바래는 요망과 그밧개유원지를 좀더대중적으로 리용하도록 설비하라는 질문이잇슨후 김병근의원의 동의로 제이독회로 옮겨가지고 오후네시 산회하엿다

密輸群衝突事件
警察部에서調査

【新義州】국경의명랑화(明朗化)를기하야 밀수업자(密輸業者)의 감화선도(感化善導)를 도할구체안을 안의(案義)하게 기관에서 고구(考究)하고잇는중 해빙기(解氷期) 최초에 안동세관리(稅關吏)와밀수군의충돌(衝突)사건이 압록강(鴨江) 상에서 발생하야 관계방면의시선을 집중하고잇다

지난이십이일 오전다섯시쯤부내영림서(營林署)부근에서 목선에인견(人絹)을 실고밀수업자구 [illegible]도구(六道溝)에밀수선을 대이고인견(人絹)을운반하려는도중가지왓을때 안동세관감시선(監視船)이이를발견코추격하야 격투(格鬪)를연출한사건이 수일을 경과한 삼십일에 이르러평북도 경찰부고등과에서 탐지하고 곳 신의주서고등계에 진상(眞相)조사를 명하야 동서에서는 형사(刑事)를 안동세관에 보내여방금 당시의진상조사를 하고잇는데 쌍방의 피해(被害)정도는 아직전혀알수업다 한다

長篇小說 그의自敍傳 【98】
長白山人作 熊超畵

북경(十)

이틀후에 아직 한쪽 방은다 발리지도 아니한채로 우리는새 집으로 떠낫다.

평양은 방이 잘 발렷것는니라고 호기를 부렷다. 새로 발라놓으니 꽤 깨끗하엿다. 그래도 밥에 닮아서 울툭불툭한방 바닥의 박석이며 때에 찌든 문시방같은것은 몸에 배어버리기전에는 깨끗이할 도리가없는것 같앗다. 그러나 내가 이런소리를 할 권리가 잇을까. 우리조선은 어떠한데, 하면 코가맥맥하엿다.

그나 저러나 마가렛은 심히 이집이 불만한 모양이엇다. 둘러나며,

「이게 무에야?」

「이런데서 어떻게 살아?」

이렇게 주얼거리고 잇엇다.

「이만하더라도 잇을 집이 잇는것만 고맙게 알아야지오」

나는 이런 말을 햇더니 마가렛은 앉어서 울기를 시작햇다. 내 말을 핀잔으로 들은 모양이엇다.

그러나 달고 치면 안 맞을수 없어서 마가렛도 하로이틀지나는 동안에 차차 웃기도 하고 벽에 그림人장도 부치기 시작하엿다.

북경구경도 인제는 거진 다햇다. 만수산(萬壽山)도 보고 와불사(臥佛寺)도 보고 서산(西山)도 보앗다. 만수산은 어리석은 작난만 같앗다. 못을 파고 산을 만들고 그리고 서태후(西太后)는 과연 행복을 얻엇는가.

통주(通州)까지 가서 수양제(隋煬帝)의 운하도 보앗다. 여기서 배를 타고 수백수천의 미인을 시켜서 채승으로 배를 끌게하엿다는 수양제는 필시 배만 똥똥하고 머리는 뱉족한 바보라고 생각하엿다. 평양은 날마다 왓다. 그는 나무를 사오고 반찬거리를 사오고 또 주인 마서방 욕설을 하고 그러고는 우리가 잘 알아 듣지도 못하는 말로 떠들엇다. 평양은 우리 집에는 심히 필요한 사람이되어엇다. 어려운 일을 시키는데만 필요한것이아니다. 이 귀향살이 같은 살림에 찾아주는 유일한 반가운 손님이오 또말동무엿다. 마가렛과 엘렌도 차차 평양과 사고여서 웃고 이야기하엿다. 평양은 생긴 모양은 흉악하지마는 웃고 떠들때에는 호인다운 빛이 잇엇다. 실상그는 악의는 없는 사람이엇다.

평양은 글은 한자도 몰랏다. 평양이라고 무슨 자를 쓰는지도 몰랏다. 그러면서 관화책을 나려읽으면 대개다 알아듣고 발음잘 못 되는데를 가르켜주엇다.

그는 우리들에게 중국말을 가르켜주는것을 퍽 질거워하는것 같앗다. 그는 순진한 북경사람인것을 자랑하고 마서방의 사투리를 숭보고 천진이나 보정부 사람의 말도 흉악한 사투리라고 공격하엿다.

우리가 그를 환영 하고 평등으로 대접해 주는 것이 대단히 기쁜 모양 이엇다 그는 차차 거룻기 없어젓으나 그래도 믿어저서 좋앗다. 돈이나 먹을것을 주면 한사코 사양하다가 마지못해서 받는양을 보엿다.

아라사 공사관에는 가끔 찾아갓으나 차차 대접이 시들해졋다. 가는것이 창피한 생각이 낫다.

한달이 거의 다 가고 북경에는 아침저녁에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햇다. 나는 심히 마음이 초조하엿다. 개학이 다처오지않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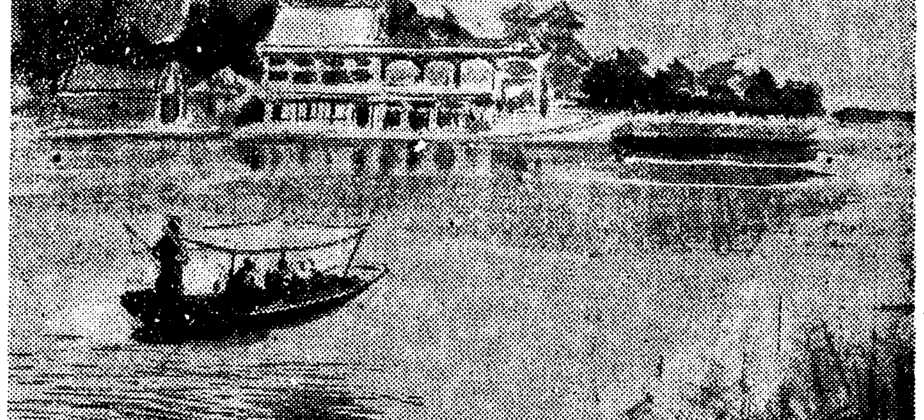
구라파대전의 보도는 연합군측에 불리한 모양이엇다. 동부전선에서 아라사 군이 패전햇다는 보도조차 잇엇다. 아라사 공사관원도 매우 초조한 모양이엇다. 아라사가 패하면 윤쪽구휼비도 희망이 적을것이다.

그래도 마가렛은 구휼금을 크게 믿고잇는 모양이엇다.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어떻게 할 이야기까지 하고잇엇다.

「구휼금을 바라지말고 북간도로 갑시다」

는 이런 말을 하고싶으면서도 못하엿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그것은 절당인것 같앗다. 그래서 한달만 차던 북간도로 돌아가기를 각경하게 주장할 결심을 하고 엘렌을 보고는 가만히 그러한말을 비추엇다. 엘렌은 내 말에 고개를끄덕끄덕하엿다.

그런데 다시내 불행한 일이 러졋다.



옷감 高級綢緞 옷감

韓靑商會

京城府桂洞町 電光一三九九番

男女淋疾 蔘茸五淋錠

人蔘·鹿茸·强力殺菌劑·高等洋藥近二十配合 說明書進呈 價一圓·二圓七十錢 咸興府大和町三 朝鮮靈藥研究所

아이생활 4月号

童話+童謠+小說+畵報+地方支局 特派員 大募集

일러에나선어린이

숨기인哀話一束

애기참새…尹福鎭

황금마차…盧良根

一部10전 一年1円

아이생활社

德永西大門支店開館

4月1日開館

記念品進呈

大特賣品(一例)

와이샤쓰	1.00
샤쓰	.50
깃다샤쓰	.90
안다샤쓰	.35
넥타이	.50
사루마다	.15
쓰봉쓰리	.35
양말	.12
모자	1.30
단장	.35
학생가방	.30
부인양산	.35
부인양말	.25
핸드빽	1.50
아동복	.40

京城赤十字病院越便(개명네거리) 前和信連鎖店跡

謹告

過般永西大門支店을增設하옵기爲하와修理工事中이옵던바諸般의新設備가整頓되와來四月一日부터一週間記念品附로開店披露大廉賣市를開催하오니倍前愛護하여주심을伏望하옵나이다

京城鍾路 德永本店 謹白

德永西大門支店

京城鍾路 德永

山材伐採 御周屋

朝鮮家屋建築業者가要求하는 山材二十萬才에限하야大特價提供, 希望하시는대로製材하야每才八錢五厘以上

宮澤製材所

京城府[illegible]四二四番

各淸酒品評會優等賞受領

宴會賞花園遊會에는 반다시일홈놉흔『正宗』으로!

(와가마쓰)

大邱東門町 若松酒造場 電話二二番

至今곳設置하시요 (カタログ進呈)

最高級心差軸式

アイスケーキ機械

(特價發賣中)

朝鮮代理店 釜山府佐川町 森近分店

女性

四月号 定價二十錢

愛讀者懸賞問題發表

二月号懸賞當選者發表

振替京城五八七八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送料一錢

▲濟州島와女性 方鍾鉉

▲그夫人의一生 申鼎言

▲도翁婦人論 李雲谷

◇表紙 安夕影

◇扉畵 金熊超

◇揷畵 鄭玄雄

朝鮮의 자랑 崔承喜氏는 큰 抱負를 안고 歐米로 巡行의 길을 떠나게되엿다

世界的舞姬인 崔承喜氏가 世界的舞臺에 데-뷔하려고 朝鮮을떠나면서 그의藝術 그의生活 그의理想을 터러노흔 大記事

매우 滋味잇는 特種記事

朝鮮을떠나면서……崔承喜

特輯 봄의小夜曲

★네가봄이련가 金裕貞

☆벗을보내고서 白菊喜

★봄의抒情 鄭飛石

☆삶은수고러워 張永淑

男女六人이 그의心境을 노래한 무지개가튼 조흔 봄날에 반듯이 보아야할 名篇들

◆懸問質答◆

(一)保健을爲하야무슨運動을하십니까 (二)子女敎育에는무슨主義이십니까 (三)子女에게무슨間食을주십니까 (四)家庭平和의秘方은무엇?

李萬珪·車相瓚·李潤模·金允經·李克魯·朱耀翰·李秉岐·鄭燦英·外諸氏

(一)잇지못할이의 이름 두字만 (二)結婚은 정말 戀愛의 무덤인가 (三)最後의 運命은 어데서 어떠케…… (四)先生의 가지신 寶物은 무엇입니까

懷南 白鐵 梁柱東 韓雪野 李源朝 安碩柱 李石薰 韓仁澤 金珖燮 鄭芝溶 朴泰遠 宋影 金海剛 安… 金…

★隨筆★

봄날의珠玉篇

牛邊川追憶 李秉珏

裸體의꼿 李源朝

鄕土有情記 張德祚

봄날의抒情詩

迎春辭(女性讀本)……李殷相

母性愛와家庭教育…田愛錄

物價騰貴와主婦의覺悟…李健赫

四月號의 特種記事

봄철의化粧問答 吳淑根

봄철의婦人衛生 張文卿

봄철의流行品들 金春喜

女性은 언제나 滿天下愛讀者의 熱熱한 支持를 바다 號마다 絶版이되고 號마다 部數가 激增되여감을 感謝합니다

家庭太平記

音樂鑑賞法

우리學校자랑

畵報

聖像

渴望

봄 벗

長安의봄

아가 이리온

제철맛난꼿

원숭이의사랑

꼿을파는處女

이색시들은봄이조태요

女海外女性界消息珍聞

원숭이人頌(漫畵)

林朱永 鴻 恩涉

(編輯室)

四月号創作陣

코스모스피는庭園(中篇) 李泰俊

聖餐(短篇小說) 李孝石

아해(長篇小說) 安夕影

停車場近處(中篇) 蔡萬植

巨彈! 天空을울리는 陽春四月의大巨彈! 누구나한번읽으면노치지못할 이기자기趣味津津한全篇의豪華版 絶版되기前에미리注文해두서야합니다

發賣中

女流의人物評 鄕土魂의藝人裵龜子論 毛允淑

未亡人慰問記

小說家 沈薰氏未亡人 安貞玉氏 A記者

提琴家 洪盛裕氏未亡人 金元福氏 B記者

哀江上新婦詞(影響堂吟) 鷺山譯

詩壇

高原의봄 林春吉

輓歌 林玉仁

漢陽斷章 張虛境

寒食名節의由來…車相瓚

忠淸道女性의特徵…又夢人

朝鮮의稅制改正 四月一日實施

三月三十一日附官報號外로公布 ◇…改正稅令의內容

日本內地稅制改革에伴하는 朝鮮의 稅制改正은 三十一日總督府官報號外로써公布 四月一日부터 實施하게되엿는데 右公布의制令은 左의十一件이다

(制令第一號) 朝鮮臨時租稅增徵令制定의件
(同二號) 朝鮮法人資本稅令制定의件
(同三號) 朝鮮外貨債特別稅令制定의件
(同四號) 朝鮮資本利子稅令中改正의件
(同五號) 朝鮮揮發油稅令制定의件
(同六號) 大正八年制令第十一號(酒稅、煙草消費稅等徵收에關한件)中改正의件
(同七號) 朝鮮間接國稅犯則者處分令中改正의件
(同八號) 大正元年制令第四號(租稅에關하야事犯이잇슬境遇의處罰에關한件)中改正件
(同九號) 朝鮮出港稅令中改正件
(同十號) 朝鮮에移入하는物品의移入稅輕減及廢止에關한件

林財務局長談

朝鮮稅制改正內容에對하야 三十一日 林財務局長談으로 如左히發表하얏다

今回의朝鮮의 稅制改正根本方針은 昨年十二月에 말한바와갓다 則朝鮮은 昭和九年國稅制度의 根本的改革을 斷行한터이나 그때 創設된 新稅中個人所得稅는 負擔의急激한 變化를 緩和하기爲하야 이것을 昭和九年及十年의兩年에 亘하야 實施키로한 터이다 昭和十一年에 至하야 更히地方稅制度의 改正을實行하얏슴으로 負擔力이잇다고 認하는方面에對하야서는 過去三年間에亘하야 連續하야 負擔의 累加를본 情況이다。

그럼으로 日本內地에서는 今回稅制改正을 行하야도 朝鮮에서는 直時이에 追隨함을不許하는 實情이다 뿐만아니라 今後의稅制改革은 現制度에對하야 充分히檢討를加한後 整然한改革方針을 定할 必要를感하고 總督府에서도 昭和十一年度及十二年度의 兩年度에 亘하야 國稅及地方稅를通한 租稅負擔의實情을 몯처럼調査中이든바 이調査가 完了되기를기다려 그것을基礎로 中央及地方을 通한 稅制에對하야 充分檢討를 하고저생각한다 從하야 今回의 改正은 日本內地의 臨時增徵法及新稅法等의實施에 當하야 此等의各稅法의運用을 圓滑케하는데잇서서 特히 朝鮮의 稅制上에도 考慮할 必要가 잇다고 認하는 事項及 國策上 內外地를 通하야實施를必要로하는 稅種에 對하야서만 此際 日本內地의 改正에 準하야 改正하기로하고 三月三十一日附官報號外로써 改正法令의 公布를보아 四月一日부터實施케되엿다 이제 改正稅令의內容에 對하야 其大體를 말하면 如左하다

一、臨時租稅增徵令實施及資本利子稅改正

日本內地臨時租稅增徵法의 運用에 當하야 特히 朝鮮의 稅制上에잇서 考慮할 必要를 認한것은 第一種所得稅、資本利子稅及臨時利得稅의 增徵과 國債利子에 對한新所得稅課稅이다

第一種所得稅 即法人課稅에 對하야서는 其沿革에 徵하야도 明白한것과가티 創設의 當初부터 現在에 至하기까지 日本內地法과 全혀 同一한制度를採用한터로 今回도 日本內地臨時增徵法에 順應하야 普通所得稅及 清算所得稅에 對하야서는 個人의 稅率에 關한것을 除하고서는 二十割의 增徵을하기로되엿다。

資本利子稅에 對하야서는 어떠한制度로 日本內地에 順應할 必要를 認하고서 日本內地의 增率의 半額 即 五割의 增徵을 하기로되엿스나 貯蓄獎勵의 所有한 國債의 利子에 對하야서는 法令上 所有者 有價證券의 [illegible] 制限을 加하고 國債保有의 責任을 負케하고잇는 關係上 臨時增徵을 行치안키로되엿다。

資本利子稅에 對하야서는 今回國債利子에 對한 所得稅課稅에 關聯하야 銀行預金利子、貸付信託利益及 非營業貸金利子等을 새로이 課稅의範圍에 加한터인데 이것은 改正前의 資本利子稅가 銀行預金及貸付信託의 利子等에 對한 急激한負擔을 避케하기爲하야 公社債의 利子에 對하야서만 課稅키로되엿섯지만 今回國債利子에 새로이 所得稅를 課稅하게되엿슴으로 國債利子에 對하야서는 所得稅의 外에 資本利子稅도 課稅케되어 銀行預金利子는 貸付信託의 利益과 比較하야 權衡상 稅負擔이 輕치안는 事情임으로 새로이 銀行預金利子와 貸付信託의 利益等에도 資本利子稅를 課稅키로된터이다。

其稅率은 資本利子稅令에 依하는것 百分의二 臨時增徵令에 依하는것 百分의一 合하야 百分의三의 稅率이된다 이結果는 銀行預金利子及 貸付信託의 利益에 對한 負擔은 所得稅와 資本利子稅를 通하야 日本內地의 百分의 [illegible] 이다。

臨時利得稅에 對하야 朝鮮은 百分의一로定하얏다。또國債所得의 控除比率四割을 二割로改함에對하야서도 內外地間의 課稅의連絡等으로보아 日本內地와 同一方針에出한 [illegible] 當하다고 認하고 이를改正한터이다。

國債利子所得稅免除制度의 廢止에 對하야서는 內外地를 通하야 國債에 對한 朝鮮에잇서서도 課稅의 統一함必要로 朝鮮에잇서서도 課稅方針을 取한것으로 其課稅方法은 日本內地와 同樣으로 法人에는 國債利子額의七割을 普通所得에서 控除키로한것인데 個人의 課稅는 第二種所得稅로하야 源泉課稅로하고 其稅率은 他第二種所得稅의 稅率과의 調和를 考慮하야 日本內地의 百分의二에對하야 朝鮮은 百分의一로定하얏다。

다음으로 臨時利得稅의 增徵에 對하야 朝鮮은 百分의十一、五에對하야 百分의六으로된다。

二、法人資本稅創設

法人資本稅는 法人資本金額에 對하야 特히 擔稅力을 認하고 創設된것인데 朝鮮은 現在 [illegible] 關係上에 있어서 [illegible] 의 助成까지 必要로하는 實情에 잇는것으로 所得稅及臨時利得稅를 增徵하고 更히 本稅를 加重함에 對하야서는 特히 慎重한 考慮를 要할必要를 認하나 內外地를 通한 統制를 보아 本稅制의 運用을 完全케함 [illegible] 하야 本稅制의 그實施를 拒否키 難한 事情임으로 朝鮮에서도 日本內地同樣의 制度를 採用하고 資本額의 千分一의 比例稅를 課키로한 同時에 別途로 이것의 實施에 依한 法人負擔의 加重을 輕減하기爲하야 地方稅法上 法人에 對한 地方稅負擔의 輕減에 充當케하기로 措置한터이다。

三、外貨債特別稅創設

外貨債特別稅는 外貨債가 內國債에 比較하야 顯著히 有利한 點에 特別의 擔稅力을 認하고 創設한것으로서 特히 課稅의 範圍도 內國債의 最高利廻를 넘는 部分을 課稅의 對象으로 한것으로 [illegible] 租稅의 法上의 方針은 內外地를 一 [illegible] 한다고 認하야 日本內地法과 同一의 制度를 採用하고 [illegible] 外貨債에 對하야서는 利率年五分을 넘는 金額 其他의 外貨債에 對하야서는 利率年五分五厘를 넘는 金額에 各十分의七의 比率의 稅를 課하기로하얏다

四、揮發油稅創設

揮發油稅는 燃料國策의 見地로 今回創設된것으로 約新히 朝鮮에서도 이에 順應하야 實施할 것이다 石炭을 原料로서 製造하는 所謂人造揮發油及揮發油에 酒精等을 混入한 燃料의 增量 分等에 對하야서는 本稅를 免除하고 方針을 取하고 稅率은 「一키로리돌」에 對하야 十三圓卅錢(一까론五錢의比率)이다。

五、移入稅遞減

移入稅의 撤廢는 既定方針으로서 今日까지 總督府 財政上의 理由로 그實現을 보지못하얏스나 最近財政狀態의 好轉을 보기에 至하얏슴으로 昭和十二年 [illegible] 以後每年마다 大體現行稅率의 約三分一식을 遞減하야 昭和十六年度에잇서서 全廢키로되엿다。

六、其他

以上말한것外에 日本內地稅法改正에 依하야 朝鮮과 日本內地間에 消費稅、稅率의 新設과 調整을 生케된 砂糖及糖水等에 對하야 朝鮮으로부터 移出할境遇의 砂糖消費稅의 一部免除規定及 其移出品에對한 出港稅의 課稅規定等을 今回새로이 臨時增徵令中에 設하야 [illegible] 하야잇다。

議會突然解散과影響

尨大豫算通過로 新年度事業順調

鐵道網擴張、港灣改修等

七十議會는 會期의 最終幕에 際하야 今三十一日午前 突然解散을 當하야 各方面에相當한衝動을주고잇다 그러나 이미豫算案만은 通過되엿슴으로 新規事業에 大體로 큰打擊이업슬것으로 觀測되고잇는中 朝鮮關係로보아도 本豫算四億一千二百餘萬圓에 追加豫算二百十萬圓 合四億一千四百萬圓의 尨大한 豫算이 通過한터이라 何等의痛痛을感하지안는다 問題로남엇든 關稅改正案이 審議未了로 남어잇는데 이것은 四國의 情勢로보아 緊急勅令으로라도 發布를 보게될形勢임으로 그때에는 朝鮮에도 同時에 實施를 보게될것으로 觀測되고잇다 그리하야 朝鮮豫算의 中心이 되어잇는 鐵道網의擴張、港灣改修其他、土木關係等 全般的으로 新年度의事業은 順調로 進行을보게되엿다

査所官制改正은 四月一日勅令으로써公布 兩改正에伴하야附屬府令도 同時에公布實施하리라한다

財界無影響

◇…加藤朝銀總裁談

議會解散에對하야 加藤朝銀總裁는 如左히말한다

解散은或是잇슬줄모르엿든데 彭大豫算과 臨時租稅增徵案을 通過하얏스니 政府의 目的은 達한터이다 從하야 解散後財界에 對한影響은 업스리라고보아도 조타 卽財界의 大勢는 彪大豫算의實行에依하야 旣定코스를 밟을것이다 總選擧의 結果는어찌될지모르나 所謂新黨도 생기엇고既成政黨도 從來의 內訌이此際淸算되어 明朗化되는 結果가 될것갓다 나는當分京城에잇고渡東치안켓다

諸會社決算

三月末로써 當期決算을 맞을할會社는如左하다

▲朝鮮運送=五月下旬總會、配當은 一分增配의 六分配當豫想

▲朝鮮郵船=四月末總會、配當은 五分据置

▲不二興業=四月末總會三分据置

▲義州鑛山=五月末總會、一割配据置

▲北鮮製紙=四月總會、處女配當은 六、七分豫想

手形交換減

三月二十二日부터 三月二十七日까지의 京城組銀手形交換高는 二萬八千七百

京城急設電話 申込三千八百?

中央電話局의 急設電話開設申込은 三十一日로써 마음케되엇는데三十日까지의 申込數는 二千八百名에 達하얏슴으로 마음까지에는 一千名申込增加가 豫想되어 三千名突破인 約三千八百名에 達하리라한다

兩官制改正公布

營林署官制改正과 水產製品檢

粟輸入關稅 또一年延長

滿洲粟의 輸入關稅는 每百斤五十錢이든것을 昭和八年度에一圓으로 改正하야 每一年을 期限으로하고 年度末마다 据置하여 今日에 至하엿는데 今年은 朝鮮米의移出도 적을뿐아니라 朝鮮이 昨年凶作이엇슴으로 細農層 粟消費層의 打擊이만흘것을 念慮하여 粟輸入關稅의 引下改正이 主張되고잇스나 當局으로서는 引下改正의 意思는업다 前年대로 据置케하야 四月一日로 發令될터이다

朝銀限外繼續

朝銀券의發行高는 下旬에入하야 一億七千三百萬圓로되고 二十五日에 一億七千三百萬圓을示한後 漸減하야 三十日繼越는 一億七千百五十七萬九千圓이되엇스나限外는 依然히二千四百九十萬圓의 大限外를繼續코잇다

輸出月額新記錄

三月朝鮮의對外貿易

三月中의 朝鮮對外國貿易概算額은 如左하다 (單位千圓)

	三月	前年比增減
輸出	九、五〇九	四、〇八五
輸入	一二、七五三	七二六
合計	二二、二六二	四、八一一
入超	三、二四三△三、三五八	

本月의 輸出貿易은 綿織物及人造絹織物의 對滿輸出稀有의 巨額에 達하고 紅蔘、葉煙草、麥酒、魚介罐詰及魚粕의 出荷好調로 輸出月額은 新記錄이엇다

또輸入은 大豆原油、柞蠶絲、木材等의入荷가만코 또中國麻布等이 好況을呈하여 昭和五年五月以來의 好調이다

下旬對外貿易

【東京電話同盟】大藏省發表=三月下旬對外貿易概算調는 如左하다 (單位千圓)

輸出	一一五、〇〇八	
輸入	一六三、一七二	
合計	二七八、一八〇	
入超	四八、一六四	
一月以降累計入超	三三三、〇七六	

建築材料品展示會開催

京城商議에서는 財界의 好況과 京城都市計畫實施를 압두고 建築界의 活況에 鑑하야 嶄新하고 能率的인 建築材料品을 一堂에 集하야 當業者는 勿論 府民의 硏究와 認識을 기피하기爲하야 如左히 京城建築材料展示會를 開催하기로되엿다

一、會期=五月廿一日부터 廿五日까지 五日間

一、會場=京城公會堂

一、出品申込=五月十日까지

勅令官報로公布.

【東京電話同盟】郵便貯金利子는 三月九日의 閣議에서 日本內地普通貯金利子를 現行三分에서 二分二厘四毛에서 三分二厘六毛로 引下改正케되엇다

郵便貯金利率改正

四月一日부터實施

【遞信局發表】外地郵便貯金利率改正이 決定되여 三十一日勅令으로써 發布케될터인데 其內容은 如左히말한다

今回改正에對하야 遞信當局은 普通貯金利子一厘二毛를引下하야 三分一厘二毛로하고 据置貯金은 其一割增인 三分四厘三毛二糸로되엇스며 日本內地는 普通貯金二分七厘六毛据置貯金은其一割增인 三分三毛六糸로되어 從來의 利率의 差에 比하야 普通貯金은 一厘二毛增인 三厘六毛로되고 据置貯金은 一厘三毛增인 三分二厘가 되엇다

郵便貯金利率의 引下에 對하야서는 前內閣時代稅制整理기 計畫되던 當時부터 問題가되던것인데 其後現內閣이 된後 右稅制整理에 變更이 加한 結果郵便貯金利率引下에도 幾分變更이 加케되어 日本內地에서는 이미 其引下率도 決定되엇스나 朝鮮은 로되고 据置貯金은 一厘二毛로하고 日本內地보다도 高率이오 또 其實際利廻도 日本內地보다 好利廻임으로 이것과 郵便貯金利率과의 權衡도 보아야겟고 郵便貯金現在高及 一人當預入金額이 日本內地에 比하야 劣한 實狀이므로 此等 各般의 特殊事情을 考慮하야 關係當局과 折衝한結果 其引下率은 日本內地의 一厘四毛에 對하야 朝鮮은 一厘二毛에 止하얏다 從하야 普通貯金利率은 一厘二毛로하고 一厘三毛를 据置貯金利率은 普通貯金利率의 一割增인 三分四厘三毛二糸로 決定되어 (日本內地는 三分三毛六糸) 來四月一日부터 實施케 된것인데 今回의 利下는 銀行預金에 對한 課稅額의 增加에 依하야 其實際利廻가 低下케되엇스므로 權衡上不得已實施케된것이다。

外地의 普通貯金利率은 一厘의 郵便貯金利率에 伴하야 外地의 特殊事情을 斟酌하야 日本內地의 貯金利率引下에 伴하야 本日官報로 公布되엇다

日本內地貯金利率引下에 伴하야 外地도亦是利下를 行케되엇는데 日本內地貯金利率에 關한 勅令을 改正하야 郵便貯金利率에 對한 郵便法이 昨日公布되엇슴으로 郵便貯金에 關係가있는 臨時租稅增徵에 對한 態度로 決定되엇는데 利下에 密接한 關係가잇는 臨時租稅增徵法이 昨日公布되엇슴으로 四月一日부터 實施 [illegible]

○

議會解散 但財界無影響이라고 彪大豫算通過로 인흠에 進行에無關이란말인듯

○

四月一日부터 稅制改正十一法令實施 이外에郵貯利下實施郵便料金引上、新煙草미도리發賣 자── 이만하면四月一日 다령은 害毒

○

粟輸入關稅는 依然一年延長決定 좁쌀이나 싸게먹게해달라는要望은 헛소리가되엇군

今日의市勢 (卅一日)

議會解散

株式崩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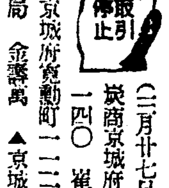
前場波瀾 昨後場에는 人絹株가總短期暴落緩和를 期待코買進되어 帝人中心의 爆騰豫斷의 鐘新에도 小口實方의 處分賣가잇서 再騰을보여 諸株强調를보엿는차에 今朝入電된 紙當株式의情況 一齊猛反騰을 보엿스며 米棉、印棉도 再次爆騰하엿스므로 人氣는俄然硬化하야 寄付는 帝人百六十圓突破를爲始하야諸株一齊奔騰을告하게되엇스나 昨日來 惡化한 議會의 空氣는 今朝에 急轉直下 議會解散斷行의 結果가게되어 人氣는 瞬息間에急惡化하야 投物이 殺到와함께 諸株도再次急轉惡化하야 東新百六十一圓丁 鐘新二百八十三圓丁 大新九十七圓二十錢까지 賣叩되여 意外의波瀾을 惹起하고 後場下支 後場은 鐘新은 十錢低로 二百八十五圓四十錢에 寄付햇스나 東新은 四十錢高로 寄付한後 採合裡에 推移되엇스나 低落一巡으로보는 買物이잇서 下支되엇다

政局不安暴落

昨後場으로부터 今朝寄付까지 强調를보인市勢는 議會解散決定과함께 再次一轉崩落을 告하게 되엇는데 昨後場來의株式의 硬化가 비록材料에잇서서 多少의 根據가잇는것이라고하드라도 株式自體의 內面事情은 아직至極整理가 完全히進行되지안헛스므로 整理途上의 不意의急變은 惡性的이라고볼수잇는데 果然中間底入을만난市勢는 政局不安 議會解散과함께再次一轉崩落되어大波瀾을告하게되엇것이다 그러나여기에서注意할것은 今日의惡化가決코惡化의 始初라고는 보지못할것이오 오히려 陰鬱한 低氣壓을驅逐하든한을이 暴雨를내려晴天을 보게될는지도 모른다는것이다 今日의 崩落으로 投物이 一巡하게되면 惡材料의 出盡과함께 整理도 一段落을 告하고 數三日의 低價鍊鍊을 격고면 上向할伸力이 생길는지도 모르므로 이것으로써 反動期入으로보고追

雜株騰落區區

整理途中의 雜株市場는 大體로는 低調를 노흘수잇스나 材料를 含한 特殊物에는 買氣도 잇서 騰落區區의 場面이엇다。 電力株는 宇治電이 三十錢低 同新의 三十錢低 大同電의六十錢低 同新의 三十錢低等으로 鍾紡인데 電燈株에는 買氣가 잇서 阪神이 二十錢高、同新二十錢高이며、京阪新이 五十錢高로 堅調이엇고、商船도 七十錢高로 七四圓丁、同新三十錢高로三三、八이엇다、纖維株는 鍾華人絹이 四六、二로一圓高이다 昭和人絹은 一月低이며 東邦人造는 一圓五十錢高로 五三圓이엇고 人造羊毛는 六十錢高로 二四、八이며 日華紡도 一圓高、帝廠二圓五十錢高、同新三十錢低等으로 大體頑强하엿다。 化學工業株는 一齊低로 日曹가三十錢低이요 同新도 一圓二十錢低로八十圓丁이잇스며帝國人絹이二十錢低、電工七十錢 人肥新의 一圓二十錢低等으로 不勢이엇다 日產新도 四十圓五十錢으로 五十錢低이오 日曹窒素는 一圓二十錢低로 二九、〇東洋窒素도 二十錢低로 三六、八 滿工도 三十錢低로 三八、〇 滿工도 二十錢低로二八、〇 로二十錢低、



(三月廿七日) 新 炭商京城府臥龍町 一四〇 崔洛鎬 ▲ 藥屋京城府貫勳町一二一 蔣瑬堂藥局 金壽萬 ▲京城府鍾路五丁目九八 太平貨物自動車部 韓來東 ▲京城府橋北町一〇九 大成洋品店 黃基協

才鐵

㊎…諸掛金引上으로 暴落하고 또 少康하자 議會解散이 되어 買方은 거듭 거듭慘敗 ▲整理途上에는 急騰하면 반듯이 惡化하는법이니 材料도때마처나왓군 ▲그러나 氣勢가度를지나쳐 追擊을하면 도로뻠을마즐는지 누가아라? ▲무엇이든 度를 지나치면 反敗가 오는법▲政局不安을 한옹안떠들더니 根本的變化는 업슬것이니 惡材料出盡後에는 回復할것이아니가? ▲무엇으로보든世界的인好景氣와 世界的物價高를無視할수는 업슬것이니까

㊎…挽近阪地中先의取組는 大正長으로 一般人氣의 買慕임을 暗示 ▲그러나 市勢란 人氣의反對作用을 하는것이 普通行事엇다 ▲當地中先亦是長이오地場側이 買賣成을하고잇스나 또한번 爆發소리는나고야말모양 ▲그리고 新甫六限의 發會는 勿論上鞘!上鞘發會後의 市勢가 高騰하기도 十常八九의일 ▲딴은더좀더욱實情이 일층 다잡아하지 않아 物價高騰時代에 米價를 低落은 萬無할일이엇다 ▲大衆的買氣가 一變하야 買氣傾向으로轉換하는데 는물이지마는……

朝 金益證券 取 京城府黃金町二

國債昂騰

低利永續?

東京【東京電話同盟】月末短期硬化로 警戒氣分이 强하야 閑散不振을 示하고 잇든市場도 新公債發行條件을 疑念하야 앗다 앗다 弊해가 不安하야 가 잇고 低金利의 永續을 圖한다고 傳하야 前日來의 良好한 買氣가 强하야 甲號五分及第三五分은 十錢乃至十五錢騰貴하엿고 四分利도 이를 反映하야 佛貨는 二十錢昂騰하고 米貨償還도 六分半五分半共히七十錢昂騰되엇다

▲甲五分利 一〇一、一五 ▲一回四分利 一〇一、五〇 ▲二回四分利 一〇〇、三〇

○大阪 甲五分利 一〇一、一〇二 ▲佛貨 一九八〇〇

品薄時代到來

例年보다早速?

保保勢로越月하게되는 市勢는新甫六限의發會와相俟하야 어떠한波紋을일으킬지 注目을加하는바인데 目前의現象으로보아서는 아즉現物이 潤澤한時代로보지안흘수업고 價位는 最高公定米價에接近하여잇스므로 强氣側의態度도 積極的行動을加하지못하고從하야 急速反撥이잇슬것이라고는 謂키難하나 그러나市勢의그自體가 二百廿餘丁의暴騰을示한後이면서도 이러타할만한反動落이업시 高價의保合을보면 그엽마나强力注이 强烈할듯이잇스며 又는正米의 事情으로본다할지라도 本年은凶作의 後인만큼아니라大體持米側이 더욱實情하고잇스므로 如千數量이있고도 品薄狀態를 免치못할모양이오 더욱이 三月一日殘存米의 數字로보아서 例年보다 品薄時代가 早速히到來할것으로보지안흘수업다 그리한 모든點으로보면 境遇에依하야는 來四月中에 例外의高價를示現할지도 亦未知이라고云云

期米 堅保裡에 納會

前場高下

昨後場의先限인十九錢止는 再昨後場의止値와同價으로서 强硬히 據賣止하엿는데 今朝阪地初付三十三圓七十一錢으로보 十八錢高를보고 三十二圓八十二錢인 三丁高로寄付後二圓八十四錢까지 올랏스나 阪會解散斷行에 依한政局의不安으로 株界는勿論 米界까지 人氣惡化하야 阪地寄付를最高로 反强하야 五十一錢까지 賣叫되엇고 五十三錢에 止爆함을보고 六十九錢까지 反落하엿다가 七十二錢으로 止爆하야 小波瀾裡에 納會되고 後場은當限受渡도 例休이엇다。

○▲新三五分 一〇二、二〇▲四分半은 一〇二、〇五▲二回四分 一〇二、二五▲三分半 一〇二、一〇▲二回四分 一〇二、二五▲三分半い 九八、一三▲佛貨 一九七、八〇▲米貨六分半 三九〇、五〇▲滿洲公債 一〇〇、三〇

今日財界 卅一日

◆米 (單位圓)

	今日	比前日	今日寄付
仁川期米先限	三二、二〇	不變	
大阪期米先限	三二、五二	一錢低	
京城白米一石	三二、三〇	不變	
正租(仁川)一等	二、九六	二錢高	
一斤	[illegible]		

◆株 (單位圓)

	今日寄付	比前日
朝鮮新	三三、五	不變
東新	一六一、〇	三、〇低
鐘新	二八三、〇	二、〇低

◆商品

	今日寄付	比前日
綿系先限	[illegible]	
人絹先限	[illegible]	
砂糖先限	[illegible]	

先限의今後와 新甫上鞘發會

當限은 既히平穩裡에 納會되고 先限만은 嚴後材料를 添加하는 今後 實限의方針을 取하고 大體新甫의先限은 一二十丁上鞘로 寄付되여 一段反撥을示하기가 容易치안켓고 新甫發會의 上鞘는 依然히 十錢八九錢을 豫想하는 바인데 新甫六限의上鞘發會와 相俟하야 天災의鐘時期는 一段落의 結果를 示하야 新期米의 人氣가 强化할 狀況을 見할것이지만 日本內地의 兩市場에는 實物이 潤澤하나 그러나 漸次品薄의 傾向을 보이게되는 所以로 大體로 東京의 各地及朝鮮地方은 巢月부터 地盤이 나쁘단한 糾物이거의 出廻하엿다할수잇슴으로 時日이 갈수록 一步一步의 高價를 加하고말것을 豫想하지 안을수업시 先限은 中心인 新甫六限의 上鞘發會에 又 新甫六限의 上鞘發會에는 昨年六月의 天井도 一層聲勢하여 上廻되지안흘가한 商談이자못 濃厚하여지는모양이다

新甫上鞘豫想

▲大阪三十丁上鞘▲東京三十丁上鞘▲神戶三十丁上鞘▲下關三十丁上鞘▲名古屋三十丁上鞘▲仁川二十丁上鞘▲釜山二十五丁上鞘▲大邱二十丁上鞘▲群山二十丁上鞘▲木浦二十丁上鞘

金銀白金 京城明治町 杉山商會

正米 少堅裡에保合

京城釘着 翌月待人氣로 一般은 積送行動을 讓하야 市勢는保合세에 不動이엇다 白三等三一、二〇 四等 三〇、九〇 一等白米 三三、五〇

仁川不動 一般으로 低價에는 實需가 渡在하엿스나 產地는 多少의 保合을 보겟다 市勢는 잠잠하다 繰綿中이다 白三等三一、二〇 四等三〇、九〇 一等白米 一、一〇 四等三一、五〇 一等白米 三三、〇 六五 五五

釜山少高 市場出廻는 三千五百叺이 잇섯는데 定期反騰을 보고 低價에는 實需하고 多少 成立되야 市價는 前日보다 十五錢高로 市況은 强調를 示하엿다 四等 三〇、八〇 三等 三一、八〇 五、五五 一等白米

大邱少康 定期高를보고 人氣多少 少康에 回復되어 五錢高唱이 되엇스나 一般은 越月待로 實賣는 活潑치 못하엿다 三〇、二五 四等三〇 三、三五 一等白米 三三、〇八

群山少堅 月末에도 不拘코 政策期待로 思惑的買氣가잇서 實物薄으로 實賣는 圓滑치 안흐나 底堅은 極히强氣를 示하고잇다 三〇、二五 四等 三一、二〇 一等白米 三三、〇〇

木浦底堅 實需小口의 手當買가 多少잇스나 期米의頭重商狀으로 人氣不振하야 賣買는 閑散하다 그러나 越月後의 賣行期待와 實物薄으로 十錢方高唱이엇다 四等三一、二〇 一等白米 三三、〇〇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中	[illegible]	[illegible]
先	[illegible]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大阪短期◆ ◆東京短期◆ ◆東京現株◆ ◆朝取短期賣買高◆ ◆實定代引日步◆ ◆短期主要株取組◆

[illegible]

海外經濟 (卅日)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金利◆ ◆對外爲替◆ ◆東京金利◆ ◆大阪金利◆ ◆阪神綿粕◆ ◆阪神麩油◆ ◆日本麥粉市勢◆ ◆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京城正米◆ ◆仁川正米◆ ◆大阪市中在米高◆ ◆大阪正米標準價◆ ◆京城雜穀◆ ◆仁川雜穀◆ ◆京城綿絲布市勢◆ ◆京城絹布◆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本絹交織人絹

滿洲商況

期米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大邱期米◆ ◆釜山期米◆ ◆群山期米◆ ◆木浦期米◆ ◆大阪期米◆ ◆東京期米◆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人絹

◆大阪人絹現物◆

生系

◆橫濱生系◆

[illegible]